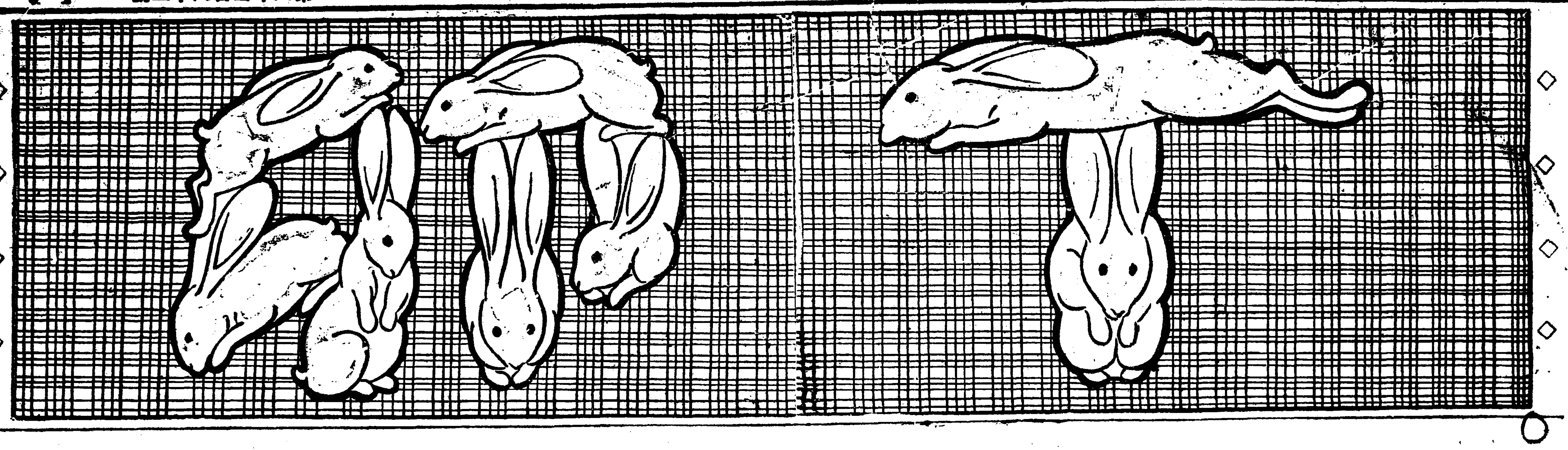


朝鮮日報

本紙六面

購讀料 一個月 金壹圓 (郵稅共) 廣告料 ...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李容九 發行所 朝鮮日報社

壯志益新한又一年

懊惱로부터鬪爭에

一

反動의最中의 新一年! 이것은一九二六年을마지하든 昨年今日의感想이엇섯다 白熱그러나嚴肅한! 이는反動의最中의新一年을마지하는者로서의懊惱와항의부르지즌소리이엇섯다 다닥처오는滔滔한물결을 正面으로바도면서 飛躍및敗退의序幕을 預期하는反動最中의新一年은 非常한懊惱도엿하지 아니할수업섯다 그러나懊惱中에마지한 一九二六年은이제또過去에 부터버렷다 그리하야平凡한一九二六年은지나버렷다 一九二七年의첫봄은 또우리에게 當하여왓다 吾人二千三百萬의朝鮮人大衆은 무엇으로써 이新年을마지 할가 懊惱의속에서부르지즌吾人은 悲憤과感傷이 아무意義 잇價値업는것을 다시한번意識하면서다만益新한壯志로써鬪爭의길을떠날밧게업다 그러라鬪爭!永遠한鬪爭의意義깁흔第一陣의길로!

二

一九二六年은 平凡하엿섯다 그는平凡하지 아니할수업섯다 抑壓의黑手가 普天率土도남기지아니하려함과가티하는일에에서 바둥대고악다귀하는 被壓迫民衆의運命은 結局平凡을예드리는듯 平凡으노릇락게되엿다 그러나吾人은안다 先驅者의그리고 鬪爭者의世界에는 오즉延長된戰線이 展開된陣野의우에 잇는것을볼뿐이다 一進과 一退가 그의策略의連鎖는 될시언정 그들의神聖하고또嚴肅한使命은 오즉最大의力量을發揮하야 敵陣으로突進하는그것이다 勝利의날이오기까지일즉休息을생각할수업는것은 且置하고 各個人의情熱의불쏫이 그의숨어지지아니한生命의 持續과함께하는동안에는 드되어必如할수업는것이다 그는稼貴한價値論的意義로서 生存은卽向上을意味함이오 向上은반듯이鬪爭을동무하지아니할수업는 人世現實의要求에因함이다 吾人은感覺한다 그럼으로吾人은알지아니할수업다 吾人은안다 그럼으로드되어 鬪爭하지아니할수업다 吾人은鬪爭한다 그럼으로또最大한힘으로鬪爭하지아니할수업다 一九二七年이오느냐? 懊惱의속으로부터널어서는吾人은오즉이한길노突進하지아니할수업다 보아라曠野에널린大衆은 지금懷疑와絶望의雲霧中에서 一道의光明을찻지는안는가? 그들이大旱에雲霓와가티그윽히그러나深刻하게期待하는것은 畢竟무어이냐?

三

世界는反動속에들엇다 그러나全世界被壓迫民衆의深刻한要求는 일즉먹출줄이업고 그의意氣는 일즉엿길줄이업섯다 一道의光明은 依然히彼等의悲嘆의틈엉으로부터 支配群들의피어놋는暗黑한毒霧의틈으로쌀노쏘다 朝鮮人大衆의運命도오즉이가튼길에잇슬뿐이다 全曠野를덥고잇는毒霧의속에는그들大衆의表現되지안는意欲및關心이 天地寂寞한나음을화드리려는듯이 萬丈의電光으로감추고잇다 이는先驅者 識者 批評家및一般의特權階級 資本閥또는統治當路의사람들까지도 虛妄한悲觀이나 或은廉價의樂觀을許치안는 一大時代的特徵이다 聰明한그리고誠實한 또犧牲的精神과및敬虔한責任感이잇는 各方面各階級의士女들은드되어이것을看過하여서는아니된다 吾人은特히이를表出하야써天下의民衆과함께 預期한新一年을 悔恨이업시마지하지아니할수업다

四

資本主義의安定을부르짓는世界의政局은 아직도平凡을持續할것이다 朝鮮의新一年도結局는또平凡하다할것이다 그러나時局의發展은 차차그當然한順序를發現하려한다 모든歷史的階段이 오즉朝鮮人으로서除外됨을許치안는다할진대 吾人은모든닥처올歷史的必然을 廻避或은恐怖함을뜻치안는다 吾人은死生이人生必然의運命인것을알고 그에關處또安處하는것과가티 모든닥처오는歷史的序幕에對하야 또한泰然히그러나毅然히 預期한覺悟로써마처야한다 한편으로統治階級의사람들의準備하는序曲을듯으면서아울러曠野에서버둘리는大衆의趨向을注意하여야한다 아니自然生長性에追從하기쉬운大衆의속에서서 그리고그의前頭에서서항상先驅者的目的意識그것을表示하여야한다 그리하야右傾및墮落을防止하면서 坂路의날까지前進하여야한다 妥協이냐?그妥協이냐? 吾人은너를사랑할수업다 吾人은다만그것이우리職能의업혜 걸처섯는것을보면서制勝의凱歌를게올리할수업는바이다 一九二七年아吾人은그대에아침지안는다 그러나그대를거처보낼수는업다 보라天下의民衆아 이壯志益新한又一年을 잘처엇더케보내여볼가?

一年過又一年春

朝鮮日報社長 李商在

每年에新正을當하면 반듯이 年頭感을쓰서 一年이지나고 一年이오는것은宇宙萬象의序幕이요 人事가또한이와갓치順行됨이라 그러함은者들부터보매遠하는者며남이업고 來하는者도부터보매來하는者 날어어서서無限한持續이될間이업스니 新年에年頭感을하는것도또한目前에顯著하고 果와變遷하는바인가하노라 다만萬古에밋고이지안는貞明이오 히려代序하야어김이업는四時의變으로써하고 物態의消長變化가스스로盛衰迎新의感을分明케하나 換新의節을際하야낭과가려 所感을품는것도몰이어人事의當然한일이라하겟도다 昨年의新年는憂愁의一年이라고말하엿다 憂愁의一年이라하든諸君이 오는날東西에隱蔽되어잇스니그果然이라할가 그러나惟君며至誠力作의人에게는所謂憂感과歡喜가아울러無用한일이다 歡喜가安息을決定하지못하고憂慼가時局을不利케하지못하니盡心하는者가비롯오天命을아는것이오天命이란者는諸局人事의遊解이업는者의일이다 故로吾人은人事의未盡을恐懼하되 時局의利不利는論外의일이라한다 爲年이이미가고新年이다시오니新年이일즉天來의福音을가저서無心人에게보내주시는아니할것이오 新年의成敗도結局은人事의如何에잇는것이니 人事의如何를보지안코悲喜의速斷을내리는것은無用하다안노다 現今世界의形勢는關係가非常하야 一國民一民族이그運命을單獨으로決定할수업고 그러나一國民一民族의消長은決코世界의大勢에만依賴할바아니니 朝鮮人同胞諸位가이에觀感하여서 그確固한意識과 周到한努力으로서發展하려는時局의新序幕에善處하고 徐徐히趨移되는四圍의情勢에順應하면 吾族의前途는반드시悲觀할바아니다 四境에서들리는愁嘆의소리는無奈한소리이오 또無用한소리이니 이때에處하는指導者들은 오즉益堅한意氣로서前途의開拓에 注力함이必要하도다 昨年에本社는社屋을新築하고繼續하야健闘하니 이健闘하는바가얼마나朝鮮의進運에對하야貢獻함이잇는지는 吾人의速斷할수업는바이나 다만滿幅의誠悃으로서前進하여야할것은發言할것가업다 新年의一小計劃으로『月刊雜誌』의刊行이잇스니 이는아즉試驗지안한바이라 아케그功果를預斷할수업도다

組織團는旣定事實로目下地盤 ... 의入選과就任手續問題에關하야 研究中인데大時에잇서革命手段 ... 一、各省公推 ... 二、各省公推 ... [illegible]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aturday, Jan. 1th, 1927.

LET US FACE THE NEW YEAR WITH A SMILE

BY PHILIP JAISOHN

1

By the time th's reaches and appears in print, it will be about the first of ... year. Good luck to every dody who reads ... sage.

It is customery with some people to make new resolutions in the beginning of every year to be carried out during the coming year. Here is a resolution that all of you sould make and be executed in 1927. Resolve to be more hopeful, more cheerful, more helpful more courageous and more willful. If you do your friends, and your nighbors will also be that way so that the atmosphere in which you live will be charged with cheerfulness and friendliness.

I think there is too much pessimism and faint self-pity among our people. It is one of the mental characteristics which must be changed before we can make real headway in the world. The world despises pessimists and shuns them. It also has contempt for self-pitying persons. On th other hand, it sympathizes and often helps those unfortunate people who fight their battles of life with a smile on their faces. Besides, pessimism breads darkness and helplessness which make the life one long torture. If we have any consideration for the memders of our families and our friends we must not inflict them and pain them with our gloomy appearance and our heart-rending tales. It is our duty to bring sunshine to all dark places and start the sparks of hope in the hearts of our fellow men. To do it we must be cheerful and hopeful ourselves as cheerfulness and hopefulness are just as infectious as sadness and pessimism. If we have sorrow let us hide it from public and keep it to ourselves. It is not right to burden others with our misfortune. There is a saying that if you laugh, the world will laugh with you: but if you weep, weep alone.

日郵船火災

(奉天廿八日發) 楊宇霆의免 ... 本日當地來 ...

獨逸少數民族委曲한陳情

◇威嚇的政治下에

(나우엔二十九日電) 上部『시레시아』에서獨逸의少數民族이威嚇政治下에呻吟함으로獨逸人會『후올구스분드』는波獨混合委員會에委曲을다하야陳情書를提出하얏더라

英政府에서講究

共産主義者處置

勞農大使館의廢止를 保守黨員은多數希望

(나우엔二十九日電) 倫敦新聞紙의報道에依하면英國內閣은最近의英國內의共産主義者의運動에對하야斷然히處置하기를講究하기로決定하고倫敦의勞農露大使館의廢止는保守黨員의多數議員의希望임으로目下愼重히考慮하는中이라 外相『첸벨렌』과『헤쓰아. 輔』는廢止에反對하얏더라

東亞事態가重大

華府會議前狀態復歸

濠洲首相演說

(華盛二十九日發) 濠洲首相『부루스』氏는今日當地에서演說하엿는데東亞의事情은반다시公平安臥를許치안는다말하고東亞에는이미將來에向하야險惡을더지며잇는重大한事態가發生되여잇다고斷言한後에米國은歐洲와協力하야亞細亞가華盛頓會議의狀態에復歸함을防止치안허서는안된다고하엿더라

希臘前大統領

位記軍籍剝奪

(나우엔二十九日電) 希臘前大統領『팡카로』將軍은今回에大統領令으로位記를剝奪하고軍籍에도全然除去하엿더라

張作霖

各國公使歷訪

態度觀察

(北京三十日發) 張作霖이各國公使館을歷訪하엿슴은安國總司令就任人事를한것이라하나其實은列國의南方政府에對한態度

駐中英公使

國書不捧呈

副本은近提出

(北京二十九日發) 駐中英國公使『람푸손』氏는아즉國書는勿論이오그副本까지도捧呈치아니하엿다는데外交部當局의議에依하면副本은近近提出할는지이라더라

及北方政府에對한態度如何를確實히하기爲하여서라고觀測되더라

華議稅率實施를

中國政府는時急準備

果然이면日本은大打擊

(奉天二十九日發) 中國當局은華府會議의結果를기다릴餘暇도업시二分五厘의華府附加稅를明年에急速히實現하려고그準備를急하고잇슴은英國案에對한大勢로보아차라리當然한일이나公使團會議에서울로反對하고對策을講究하든日本에對하야는正히大打擊인觀이잇다此際에日本으로서는速히英國案에對한具體的意見을公式으로表明하는同時에一方中國政府와의通商條約改訂交涉을벗더한方法에依하야可及的速히開始하고形體를變하야英國案의實施에備할만한機會를逸할時에는日本은際涯이失敗되고拾收할수업는데까지이르럿슴으로實노重大한危機이라고觀測되더라

英公使態度에

北京政府不滿

(北京三十日發) 英公使『람프손』氏는二十九日午後에顧維鈞氏를訪問하고다만着任人事를하엿슬뿐이고親任狀은提出치안한데北京政府와張作霖은同公使의態度를北方에對하야非友誼的이라고不滿을가지고잇다더라

孫軍積極援助

山東軍이

有力軍隊配置

(上海三十日發) 張宗昌、孫傳芳、陳調元、畢庶澄、葉開鑫等은南京會議에서直隸軍、山東海軍은長江以北及長江上流防備를任하고津浦沿線에有力한守備隊를配置하야南軍이江蘇에侵入할時는積極的으로孫軍을援助하기로하엿더라

張氏의兩顧問

北京에急行

(天津二十九日發) 張作霖氏의入京은한갓新內閣의組織問題뿐아니라그밧게政治上軍事上에여러가지重大한案件이잇슴으로奉天에잇든日本人顧問松井氏와町野顧問은二十九日에張氏의電命에依하야北京에急行하얏더라

無電建設困難

孫氏反對로

(北京二十六日發) 浦口에無電臺建設件은孫傳芳의反對로困難하게되엇슴으로同時張宗昌氏는徐州에建設하기를主張하매『회니룬』代表는本國에照會中이더라

先物去來懲戒令

◇常習者는死刑

金融維持會에서發布

(奉天發) 奉天當局은奉票의價値가依然히五〇元臺에잇슴으로드되어金融維持會의名義로써二十七日金融에關한懲治條令七個條를發布하고先物去來를하는者에게는體刑을科하거나고通達하엿다 類는公然秘密常習의三種으로서公然先物去來一萬元以下의犯行者는二等或은三等에分하야有期徒刑에處하고一萬元以上의者는一等으로부터二等의有期徒刑에處하며秘密히先物去來一萬元以下犯行者는四等으로부터五等의有期徒刑에處하고一萬元以上者는三等으로부터四等의有期徒刑에處하며常習者는死刑에處한다는것이다 一說에依하면金融維持會의原案으로써政府當局에申請中이라고한다 그런데二十七日朝의奉票는最高價五七五元이더라

鐵筆寫眞 새해에인 들입니다 投稿歡迎

三大案對策

政友會決定

(東京電) 政友會는二十九日午後一時부터幹部會를開하고左의事項을決定하엿더라

一、鐵道疑獄事件은二十四日不起訴로決定되엇스나荒唐無稽의不實、我黨을重傷하려는反對黨의奸策은全然失敗에歸하엿스나本件을今日外지未決의狀態대로永久히放置하야一世의疑惑을深刻케한것은遺憾하고또한惡宣傳을차려고企圖하는것은말할餘地도업다

二、松島事件審理는終結에際하야角南檢事判事에게對하야種種의壓迫과干涉을加하고判事를交代하야箕浦氏以下의各被告에게不利한決定을與하려고하는것은若槻首相僞證事件의影響을薄弱케하려는魂膽으로서司法權獨立을爲하야容易치안흔事件이다

三、現下政局은頗히暗澹하야如何한事態가勃發할는지도알수업다故로我等은各各注視를게을이하지안키를바란다 또한政本兩派의三派聯盟에關한委員會는一月七日前後에開하고십다

四、一月十日定例幹部會는一日延期하야十一日午後一時부터開會함

五、元日의恒例新年會는中止함

六、一月十六日午後二時부터定時大會開催할事

等을決하고午後三時에散會하엿더라

八面鋒

丁卯年이되엇다、壁上에걸린時計가한번땅……치는瞬間에、丁卯年이되엇다

○

이로부터天時가새롭거는、人事인들새롭지안홀수잇스랴、새精神!새理想!새抱負를가지고、새해의丁卯를마줄것이다

○

그러한가운데에、우리의폴은메는、東面에도極東에잇슴으로、東方에서비롯하는、봄빗이가장먼저、무듸폭아질것을것버한다

○

새벽火焰에여돗하게터운、椒酒한잔 ... 들고……!

新年을새맘으로맛자

◇米國賓府에서 徐載弼博士 (上)

이簡單한寄稿가本國에到着되야發刊되기까지는新年元旦이될것이다

◇

每年年始에는當하야或엇던人士들은一年中에施行할新決心을세우는것이慣例이니愛讀諸位는左記와가튼決心을굿게세워一九二七年中에勵行하라

만흔期待

만흔歡喜

만흔慰安

만흔勇氣

만흔希望

等의新年을세우고實行하면朝鮮사람사이에도如斯한希望과活氣가生活의雰圍氣는愉快와友情

◇

우리朝鮮사람가운데는悲觀이甚하고自身을哀憐함이날로만하世界에참된進步를밟고자할진대우리는무엇보다如斯한精神을變更치안으면아니되나니라 이世界는悲觀을미워하며실혀하고또한自身을哀憐하는者를업수히녁이나니달리말하면 이世界는生活의艱關을웃는낫으로對하는不幸者를援助한다 쏜만아니라悲觀은暗黑과絶望을生하야써平生이長久한苦痛에不過한다 우리와家族이나親友를생각할진대죽어가는外貌와苦慘한形容을하며 ... 캄캄한光

徐載弼博士

◇

우리는公共事業을爲하야協力하기를배호지못한것도事實이다 그러나過去에는現下狀態가一致協力치못한데에基因됨을깨닷고將來에는共通의利益과幸福을爲하야協同할줄을나는밋는다 朝鮮人은協力活動하는手段을容易히배호지못하는것가지마는協同의美點과必要를學得한일이업슴만아니라協同은民衆에게富力과勢力을생기게할가치어하야過去의政客과社會指導者는禁止하얏다 ...

◇

朝鮮의面積은 비록狹少할지라도現在人口의現在生活狀態로는朝鮮土地의生産만으로도自給自足이될것이다 萬一科學的耕作과適當한輪植方法을採用하면土地는現在의數倍로生産하야生活向上과繁榮되어가는人口의需用에充當할것이다

002235

001537

謹告

우리의雜誌界는자못多樣이어서思想、經濟、文藝及學術等의運動으로衆眼에公啓하야新智識、新活氣를發作식힘으로目標삼어 모든것이根據와土臺가굿지못한우리네의일이나아니은實로致賀를안길바아니나 라좀過히말하자면月復月創刊號로繼刊되는세음이오、一次創刊된誌가初誌를貫徹하기까지存續지못함이외다、勿論續刊치못함에는團圍의事情도업는바아니나何如間一言으로말하자면雜誌種目이量으로는宏大하되質로는그實을計하기어렵다함이외다

이러한現狀中에서 本誌青年이六餘星霜을하로가티꾸준히繼續하여왓슴은밝으로本「青年」을有形無形間에贊成하여주신여러분의協調와안으로徵誠이나마根底가서이다는것을證하는바외다、이에더옥힘을쓰고誠意를合하야새해부터는우리의힘이자란範圍에서平年보다三十餘頁을더느리여前後八十餘頁으로하고여러文章大家의執筆과新進文士들의뜨거운熱誠을綜合하야一層面目을刷新함으로大衆의要求에貢獻을目的함이 新年을맛는우리經營者의本音외다、이마큼準備에는要케됨으로不得已新年號는一月十五日頃에發行하게되오니滿天下讀者諸彦은虛急하신대로기다려주시기를言明삼아謹告하나이다。

丁卯元月元日

京城鍾路二丁目九番地

青年雜誌社 白

ライオン印作業服

堅牢廉價美(好評如湧) 店員도職工도農夫도勞働에도小使도 이服에限함 (通信販賣カタログ進呈)

京城驛前 ユニオン商會

染料都賣

染料原料 高級製品 粉末잉크 染料三十餘種要함 現品見本 割引表進呈

京城府花園町九十七番地 染料原料商 東華洋行 電話本局三九九二 振替京城一二四〇五番

原料部倉庫 花園町百十五番地

製品染工廠 花園町九十六番地

果樹苗木

豫約募集

開城池町五七三番地

安山農園

振替京城一二七七八番

說明定價表無代進呈

180628

丙寅年은己卯年에 鐵甕城警戒裡過歲

重大事件簇出한一年

데이차만세와○○당사건을비롯해 전국각도에총소리가끈치지안핫다

건의확대됨을따라 검거의회오리바람은 권오설을잡엇스서 리수흥(李壽興)、류남수(柳濟洙)로남미아마다소문(東小門)、안성(安城)、리천(利川)、수은동(授恩洞) 에총소리가련거퍼이러나 경긔일대는 한농안불안과공포에 싸이엇스며 그뒤을니어 평북、평남을뒤두로황해、강원、충청、전라농디에권총청년이 출몰하야 전국각도에총소리가 끈치지안는 일이 업도록 한신던문과 무서운협박장이쏟쏟낙아 부호의공포시대를연출하엿섯다 긴장안동긔는 년말이되여도 풀리지안홈인가 더한층엄밀해졋나 해외에서새로히조직된 조선○○운동단대불명단(不名團)으로부터 경성을위시로 각도각군의부호에게재산김도를협박한 금액을시당한협박문이오는등 이십는더욱홍하하든중 병인년도사흘밧게남지안흔 십이월이십팔일오후세시경부터 돌연히 시내의경계는 어마어마하게 엄중해지며각은행과 큰회사의문전에는 무장한경관을 배치하는등 그뭡씌한경계는 나는새도건늘일미경으로 경성을내는 괴마순사의 발굽소리와 무장경관의총검에 싸혀 새해를맛게되엿다

병인년도 어느듯 저물고말앗나 어느해를불론하고 일년 삼백륙십오일동안에 사건이 발생안을리업지마는 병인년과가티 조선아에 중대사건이 흥생청출한 해운은 그리흔치안흐리라 을축년 십이월에 발생된 ○○당사건으로 팔미아 마신춘벽두부터 수수선하엿고 륙월국장전후연 데이차 만세사건을비롯하야 ○○당사

車中金庫에둔 大金을紛失

대련역습격사거이발생후 뒤를니어또이런일이생겨

額數는二萬六千圓

지난이십륙일밤 열시사십분경에 돌연히괴상한 청년한명이대련역(大連驛)을습격하야현금이천여원을 강탈도주한사건이 돌발한이래아어엄마되지아니한지난이십팔일밤에또다시영구(營口)발장춘(長春)행렬차가 봉텬(奉天)문관둔(文官屯)간을진행중 귀중품(貴重品)을 너허두는 금고(金庫)속에잇든현금이만륙천여원이 분실되엿다는바 이에금보를접한소관서에서각처로엄중수배를하는일면관계자수명을인치한후 엄중취조중이라는바아즉까지 진범인은 데포치못하엿다더라

安東縣驛에도 十八萬圓盜難

창고에너허둔게간곳업서

無警察狀態의滿洲

대련역(大連驛)을습격하야현금이천여원을 강탈도주한사건이 이러나자이어엄마되지안하야 또다시 안동현역(安東縣驛)소하물계(小荷物係)귀중품(貴重品)을 창고(倉庫)에보관해두엇든 대양표(大洋票) 십칠만팔천원과 금표(金票)이、오원이분실된것을 당야숙직원 대박(大泊)계원이발견하고대경실색하야 곳안동서(安東署)에급보한바 이급보를접한 소관안동서에서는 계관이현장에이르러 검사하는일변 각방면으로비상선을느리고범인을엄탐중이라더라(안동현)

天靑新計劃

시내경운동(慶雲洞)에잇는 텬도교청년당(天道敎靑年黨)에서는 신년부터 조선현하의 긴급한문데인『자란이』(成人) 교양운동과 흑의단발운동(黑衣斷髮運動)과 각부분운동의 통일과 기타중대한문데의 결의안(決議案)을 전국팔천여당원과 해외해서 빽여디당에 발송하엿는데 이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국에일으키어 금년안으로 실현하도록 노력하며선전할터 이라는바 그결의안은다음과 갓다더라

◇決議案

一、『자란이』敎養運動을니르킬것

都市나農村을勿論하고모든運動이靑年、少年을中心하야 날어나는傾向이잇고 『자란이』(成人)를中心하야는甚히隱避沈滯의現狀에在한바時急히新聞雜誌輪讀會、講習會、談話會등을맨드러『자란이』를敎導하자는것

二、黑衣斷髮運動을全國에니르길것

白衣亡國 結髮傷腦의惡習을革破하기爲하야黑衣斷髮運動을全國에일으킬것

三、各部門運動을統一할것

少年會 學生會 靑年女子會 四月會 其他各團體를統一할것

四、黨徽章 部門規則 會歌等을制作할것

五、黨員 短期 講習會를開催할것

六、黨에布德錄을備置할것

安州市場도 嚴重히警戒

사복경관을증원

이번국상으로 인하야 안주서에서는 사복경관을 증원한후시내를 엄중히경계하는 중이라는바 특히 요시찰인에게는 더욱주목한다하며가무방가(歌舞放歌)를엄금하기위하야화류계를불종경계한다더라(안주)

勞働團體 幹部懇親延期

여러가지사정으로 이미준비중이던 조선 로농총맹(勞農總同盟)주최의재경로농단테간부신년련합간친회(在京勞働團體幹部新年聯合懇親會)는여러가지부득이한사정에의하야중지하기로하얏다더라

子女五人 莫慰母心

평북희천군읍상동(平北熙川郡邑上洞)에잇는서병수(徐炳洙)의안해김구월(金九月)(三二)은자녀간오남매가 잇슴도 불구하고 엇던자와비밀히어데로 도주하엿는데 본부서병수는 당디경찰서에 수색원을 데출하엿스나 아즉행방불명이라더라(희천)

義和少年刷新

시외서강(西江)에잇는 의화소년단(義和少年團)에서는금번에 일홈을 의화소년회(義和少年會)로 변경하고 여러가지로 내용과 조직도 변경하엿다는바 그변경된것은 일일부터 실행하기로결의되엇다 하며 이에딸어 일반의 긔대가 만타는데 결의사항은다음과갓다더라(고양)

◇決議事項

一、會員少年少女共通의件

二、入會志願者父兄承諾書添付의件

一、集會協動會員賞狀及賞品授與의件

一、正會及數學講演設置의件

一、其他事項(畧)

◇綱領

一、우리는배우고實行하여理想的少年少女가되자

一、우리는義로움으로써서로사랑하며서로도읍자

一、우리는心身을鍛鍊하며모든것을準備하여將來의새일꾼이되자

留置場過歲

各署統計九十八名

묵은해를보내고 새해를 마지할때에는 누구를물론하고 모다새로운마음으로 모든 새희망과 포부를 가지게되는터이나 그중에는오히려 사실이잇고업슴을 물론하고 죄악의탈을 버서바리지못하야렬창속에서 고통과 처음으로 새해를마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되는가 이제 경성부내각류치장(留置場)에서첫달금을날밤을 새우게되는사람을 됴사하야보면 오경찰서와 경찰구류치장을압하야 구십팔인인내 이것을각서별로보면 들에와갓더라

警察部三人‖鍾路三七人‖本町十二人‖西大門三十二人‖東大門六人‖龍山八人

한글欄에對하야 (一)

한글란은 조선글을 바로쓰는란이다 우리가이제까지 쓰는조선글는 敎育式이엇다 『사람이말을한다』 할것을 『사람미마를한다』 이와가티 쓰는것이다 종부끄러운말이지마는 우리가말이 잇으되 말을말다이하지못하고 글이잇으되 글을같이쓰지못하여왓나 사람이 단여서 못단일ㄴ가없다 그럿다고 단이는머가 다길이없도엇고 길을밟시아 하는길은 길이아니라는 길가잇다 말은 소리로나아내는것이다 이소리를 소리만적으면 편한것도같다 그러나 우리만쥐는그글은 글이아니라한다 곳法으로 쓰는글이라니라 말이다 다시말하면 文法으로 되지못하엿다는말이다 이제우리는 이法으로 지아니한 우리글을 法으로홀이키려하야 또말하면 한편말을 세우려하야 이欄을두고 날마다 생하여 여러분께 紹介하는것이다 그러함으로 여긔에紹介되는말은 글로아름다운것을 取하는것도아니요 事實이特別한것을 取하는것도아니다 무슨字는 이럿케쓰고 이럿케쓰면 法만取한것이다 우리는 이제에 滿天下讀者에게 크게宣言할것이잇다 무엇인고하니 이제는말이는 조선말이 讀讀이 생기고 조선글이 文法이생겟다는것이다 다시여러분께 비는바는 言文이본래 個個人의所有가 아닌것과같이 여러분은 우리의이欄을또한 한사람한社의 하는것이라 생각하지말으시고 여러분의所有로 하려는것이다 이所有하는法은 곳實行이다

山積한棉花種에 四人一時壓死

목포제유회사창고속에서 면화씨파내다무참히죽어

지난 이십구일오전 아홉시경에 목포제유회사창고(木浦製油會社倉庫)에서는 참극이연출되얏다는바 이제그내용을 듯건대제유회사창고에는 언제던지 면화씨(棉種)섭데기를 산과가티 싸아노코 팔든바 당일도목포에잇는 석천제빙소(石川製氷所)와 대전정미소(大田精米所)의 인부와 내면뎡미소의 인부수십명이 그면화씨겁데기를 포대에담어구루마에 실을야고 털도인부가 터렐에다 파서들어 가산가티 싸아노은 속으로파들어가다가 뜻밧게산과가튼 그면화씨가문어져 네사람이 그속에파무티어 버서나지를 못하게되야여러인부의긴급한구제수단도그효과를엇지못하고드되여죽어바렷스며그밧게여러인부도위급한광경을당하얏스나생명에는관계가업섯다는바그비참한압사를당한인부네사람은 압에와갓더라(목포)

木浦海岸通二의二 金昌默(四三)

木浦大成洞一八 張學先(三八)

木浦市外竹橋里 劉時天(三六)

務安郡飛禽面睡雉里 朱在根(三一)

中和火災

손해륙천여원

지난이십구일오전한시경에 중화군중화면낙민리(中和郡中和面樂民里)리영환(李英煥) 상덤에불이이러나서 약 세시간동안련소되야 그이웃집 김원균상덤까지소실되야 손해 약륙천여원에달하고 소방대의 극력활동으로겨우진화되엿다 더라(중화)

◇유료변소간판과 구두닥는광경

색다른職業로만스 (1)

大便에도黃金인데 日收不過卅錢

탈사존사람은동도돈주고누는데 왼종일애써도실수입은몃푼못돼

有料便所主任의悲哀

경성역에 한번발을 들여논사람은 누구나웅장한 건물과화려한장식에 눈을크게뜨고 놀내일것이나그러나 두번다시 눈을크게뜨고 놀래는것이잇스니 그것은의자(椅子)에만 올라안지면 구두를 신은채 그대로 뚝뚝이닥거주는구두닥는데와 한번뒤를 보는데 얼마식돈을밧고 들이는유료변소가잇는것이니

『그런게 잘잇는게요』 경탄의 눈으로

一等待合室엽 有料便所看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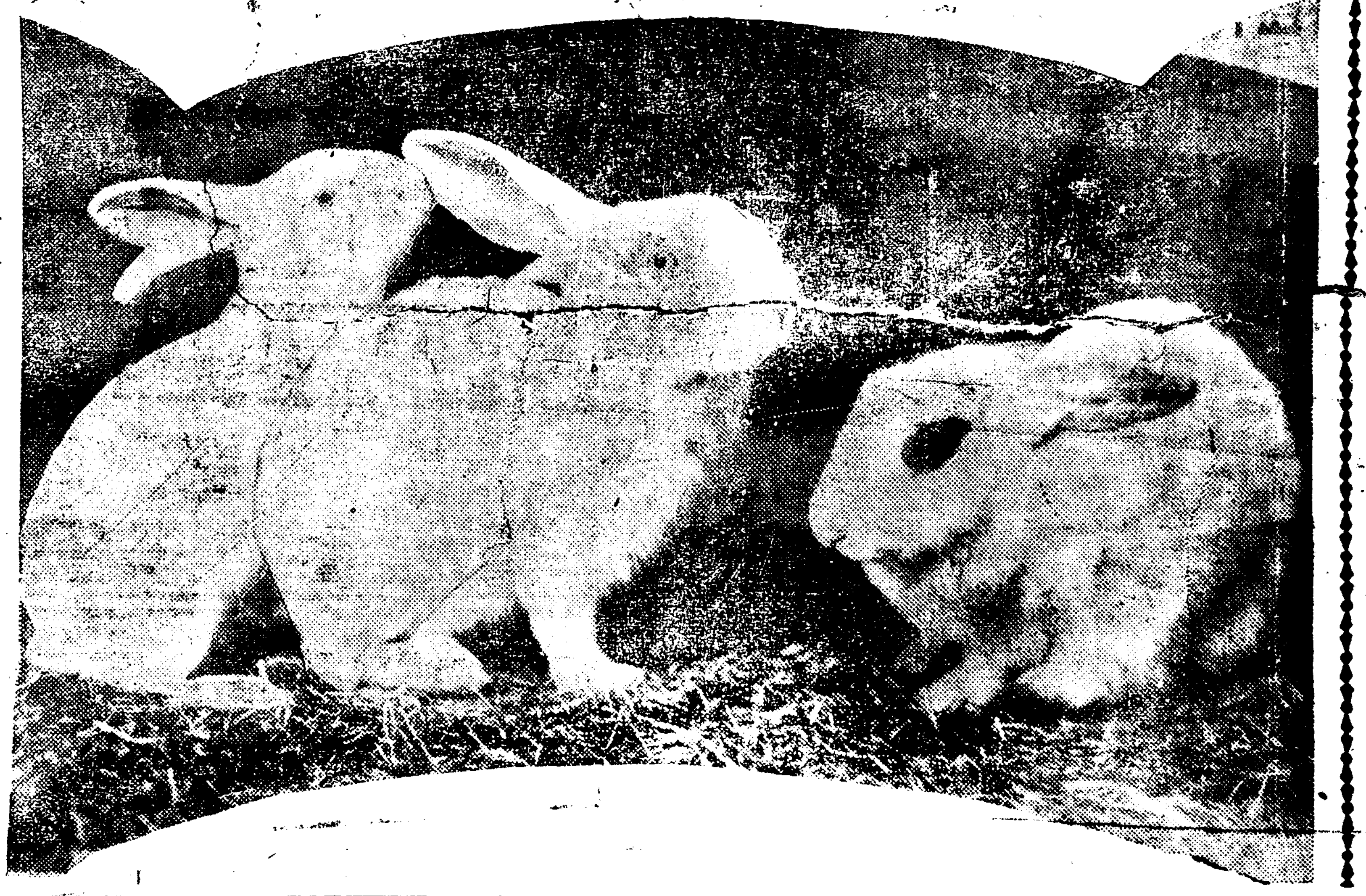
경성역일이능 대합실에서 조금남쪽으로 꺽기면 이리발소에잇는 회전의자(廻轉椅子) 가노혀잇고그압헤는 나희삼십세쯤되여 보히는 복잉은 젊은사람이 하나서잇스니 이것이 구두닥는데요 거긔서 조금 기여 삼층에잇는식당으로 올라가랴고층계에발을 올려노면 바로 으른쪽에 유료변소라는네모진 패가부터잇스니 이것이 시골서올라온 촌양반 들이눈을크게뜨고 놀내는 돈밧고들이는유료변소다

一日平均顧客 十名內外小數

구두닥는데와 유료변소를따러보는 사람은 시내죽첨뎡(市內竹添町)에사는 량정식(梁貞植)이라는사람인데 경성역으로 량씨를차자가니쎄마츰 어떠한 양복한신사한분을의자에안치고 진흙 투성검정 두를닥느라고 한창방쀄이엇다 들으니구두닥는데는 한번에삼전 유료변소에는 한번、삼전이라는데 구두닥는데 손님은 하로에 평균이십명가량이되여서 그의수입이 이원가량이며유료변소의 손님은 하루에평균십여명도 못되여서 그의수입이 겨우삼십전밧게 안된다한다 량서방은 구두를닥그며 남보기에는 호강스러운 유료변소이나 와그것을 나려보는사람도응〃그의수입이만흐리라하지만실상인즉 그러치못함니다 하로에단삼십전의 수입이나 그것이무엇이되겟습니까 남들은돈을 내고뒤를다보것마는 그수입을가지고는 한끼의밥거리도못됩니다』하며하소연겸 웃어보이엇나

料金額數듯고 鄉客大驚失色

겨우한숨을 돌린량서방이 이마에땀을 손수건으로 문지를적에 커편삼등대합실쪽에서촌양반의 한떼가 몰려와서 이상하다는듯이 사방을휘돌다 보다가그중의 어떤로인한분이량서방을보며 여보슈 저돈밧는뒷간이란 한번에 얼마식이라누하며 뭇으니 량서방은아주귀찬타는듯시커다란목소리로 네ㅡ한번에삼전입니다 한번에 삼전이라니 그러면우리게돈으로양반이 가구만하면서 촌양반들은 깜작놀난듯 다시무엇인지중얼〃이며저편으로몰려갓다 량서방은 그들의 뒤모양을물〃이바라나보며 이런일이 하로에도 몃번식잇답니다 하며 얄살우서버린다



〈금년의주인공되는토기

本妻慘害犯 獄中에서自殺

정신에이상생겨

십이월십오일 동경 풍다마형무소(東京豊多摩刑務所)안에서 복역중인소림오랑작(小林五郞作)(四二)은 감시(監視)의틈을보아 목을매어자살하얏는바 동인은지난팔월남천주(南千住)관내에서 안해를죽이고 도망하던차에테포되어 십이월십일징역팔개월에 처한배되어 정신에이상이는듯하다 더라

疑雲重疊한 本夫謀殺美人

시계모미테서살아오든중 뜻밧게부부모살혐의바다

평남대동군 재경리면빙장리(平南大同郡在京里面氷庄里) 김선부(金善富)(二三)란녀자는자금으로부터 삼년전가을에 부모의약혼으로 평원군순안면관북리(平原郡順安面館北里)박병준(朴炳俊)의아들 박대건(朴大鍵)(一二)에게 시집가서 그와가티사이가 결맛지안는남편과 살면서도 아모반항업시 오륙식부모의뜻을 순종하야 살아오든중 자기남편을 옹식에 양잿물을타서먹여죽이려하얏다는혐의로 검거되여 방금엄중한 취됴를밧고 지난이십삼일에 평양디방법원검사국으로 일건서류와가티 송치되엿다는데 이제그 사실을 들으면 김선부의 남편박대건의친모는세상을떠나고계모는 어머또아들을아잇것스나계모는 항상선부를 그다지 사랑하지안든바 재작년오월 이십구일에 대건이가서방에서 점심을 먹으러고가지고온밥을본즉 빗이 이상하야 동무에게 물어보즉 쥐먹을것이라고 함으로 그냥집으로 가지고와서 부모에게 말 하엿더니 그의계모는선부를ᄭᅮ지즈며접을처서 치독한다 를 알아낸다고선부를압혀안치고 비병에 첫가락잘을끗고 선부의식할머니는 그엽해서 무당모양으로 중얼거리더니 얼마잇다가 무슨까닭인지 선부의계식모의 몸이 떨리면서 그병이선부의 가슴에 떨어짐으로그것이 선부의짓 이라고 지목하매 선부는 눈물을흘리고집으로 돌아와잇다는데 양잿물을석것다는밥은 보관 하얏다가 사실이발각되자 증거품으로 경찰에 데공하얏다는바 그사실은 은니하겟다고 언명한 시모가증거품을 보관하야두엇든것는 일반이모호이 생각한다 하며검사국으로 올때에선부는 죄가업스니안가겟다고 애소하얏다 더라(평원)

銀行에侵入한強盜 守直小使慘殺

일본강산현하의참극

被害者는六十老翁

일본강산현창부뎡(岡山縣倉敷町)강산합동저축은행창고지점(岡山合同貯蓄銀行倉敷支店)에 지난이십구일오후일곱시경부터 삼십일오전다섯시까지그사이에강도한명이침입하야 숙직(宿直)하는소사 신산요평(新山要平)(六三)을참살한후 주머니에들어잇든 현금오십여원과 치중시계를 강탈도주한것을 삼십일아츰에야 발견하엿다는바 목하강산디방재판소(岡山地方裁判所)뎐중검사정(田中檢事正)과현경찰부(縣警察部)로부터 림경부과장(林警部課長)이 현장에이르러 검시하는 일면비상선을늘니고 범인수색에 노력중이라는바 동은행은 더말님에도불고하고 삼십일에도 휴업을하엿다더라(창부뎐보)

結縛된狂人急死

벙어리로광증사지겹하자 결박해두엇더니고만죽어

檢事出動、屍體解剖

시내황금뎡(黃金町)오뎡목일백七십사번디 산상묘(山上卯助)(三一)의이남산상일웅(山上一雄)(二二)은 본시벙어리로 또광증을겸하야달마다 이삼회식 발작하며발작을하면 가족들에게 폭행을하는터인바 지난삼십일 오후세시에도 광징이발작하야 그모친되는『마스』와누의되는『마쓰요』에게 폭행을하야 위험할지경에이름으로 그어머니는 그쌔마츰그곳을 지나가든 두부장사인조선사람에게 의뢰하야 사지를묵것스나 여전이 폭행을함으로그어머니『마스』와누의『마스요』와아우수이(秀二)세사람이달려들어 기동에비쓰러매두엇더니 결국동일오후구시반에사망하야버렷는데 이급보를들은본뎡서(本町署)원과 경성디방법원김검사(金檢事)는 현장에 출장하야검시를한후 방금전중의(田中醫)병원에서 해부중이라더라

半年間鐵窓生活後 保釋된三十農民

일본순사에게폭행햇다고 數百名檢擧한岳陽事件

[하동]‖하동군악양、청암、양면(河東郡岳陽、靑岩兩面)초전(草田)사건으로 악양초군이청암면주재소(駐在所)일본인순사에게 폭행하엿다는죄명으로 악양초군수백명을 하동경찰서에서 검거하야 취됴하든중 결국삼십삼명이나되는 다수한농민을 진주검사국(晋州檢事局)에넘기어우금 반년이상의긴시일을 미결감에서 만흔고초를바다오다가 지나이십오일오후구시에삼십삼명중 강대용(姜大榕)조한식(趙漢植)임성필(任聖必)삼인을 제한외에 삼십명가량은 권부보석이되야무사히돌아왓다 더라(하동)

姜泰璡氏熱情

무산농민을위하야 철창에서신음하는

◇數千圓金錢提供

하동군악양면 정동리(河東郡岳陽面亭東里)에사는 강태진(姜泰璡)씨는 당년이삼팔세된는청년으로서 수년전부터 자긔면내의무산계급(無産階級)을위하야만흔공헌이 잇섯는데 이번의초전(草田)사건으로 삼십여명농민을 진주검사국으로 송치한후로 팔백여원의거액을내여 변호사(辯護士)까지 다야고 청섭하엿는데 금번에삼십명의 보석(保釋)에대한보증금 륙백원까지도강태진씨가 천대하야무사히출옥되엿슴으로 동씨의 열렬한동정에대하야는 누구나 칭송치아니할수 업다더라(하동)

종명자

새해는왓다! 정월초하로人날! 허무당선언으로바롯된병인년(丙寅年)은년말의뒤숭숭한공기가장안을몰드린채도병인해도기우럿나▲날은만두쓰든 오고야말새해는왓다 자그러면자명종자도 오는밤 열두번을치고나면 만천하독자와 가티새해를 맛게 되니▲「신년새해에는 소원성취하시고 다복다남하소서」라고세배처울드릴밧게 업습니다

氣質의弱者와 氣血不足의秘聞

본원의자연뵈건강제(자용홍양환)은빈혈로신비한작용이 남녀노소간의기질이약하고건강처못한며와노인쇠매의체중이신비하게도권치되고(부인용)의체반경도부조와자궁병등이신통히나며남녀간선후천부족과신경쇠약등제증이일복에농히운권결터어되고장근활활하야건강하되며노약재건강활조하야위대한긔호난실도히사회의공헌대커공이잇그럼업술을자신합니다(약가는특상품한제십륙원팔십전、보통품오원팔십전、완고용별품한제삼십원、송료각륙십오전

淋疾과梅毒의아러둘것

(림질)남녀간백약누효한제증과실지어수삼십년된련하약질까지라도본원(치림비제)의불근가두약을쓰면다만일이십분의가래충가는무정품이소변으로쥐출하고즉시권치되야개발치안습니다약가한제칠원、완고용별품십삼원(매독)남녀간선후련성의여하한매독의중상이던지백약이무효하며자조개를되야활수업시된선후련성과병세에따라서(도人수)만잘맛추어쓰면다만한제복용이내에단근되야평생개발치안는편하비제(拔梅秘劑)가역시잇스니고시하시요약가한제십원완고유별품한제삼십원、송료각륙십오전

陽氣不足의奇聞

여주어두나말삼?

양긔부족의권세계덕발명된권문비제가잇는데청년은물론이고비록칠십로인까지라도능히외는더슬럼요가업시여신하되하초가습하고찬증、몽설、유정、파양긔부족하야중도폐지되긔갈하며조두되는제증과쾌감이 업는증과음의불긔하며방사에불여의한제증등 칠날는내에거즛갓지도치치되고임의능히 하고용지불갈케되며보음、보양이됨으로비록로인이이라도소년의성덕쾌감를늣기게되며더욱효덕이영구히감니다만일무효면배원으로쒸현상하겟습니다약가한제삼원、사십원、일품한제삼십오원、송료각륙십오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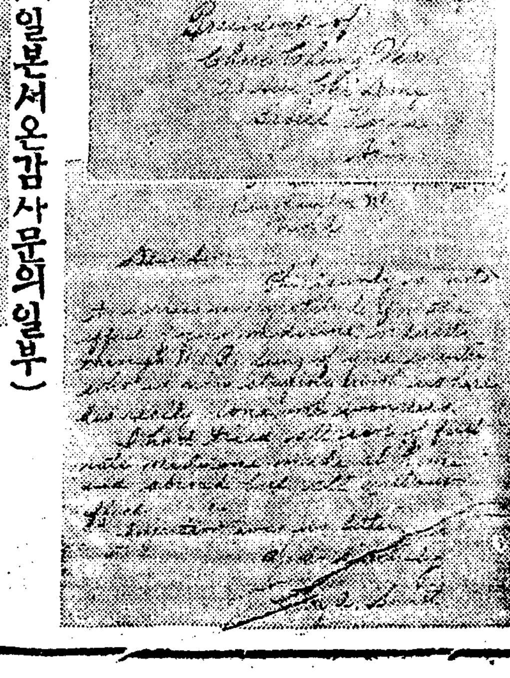
이상의명약은 선원만안이다청국과서양에서와지크게환영을밧게되야신용이날로놉하감은사실인바본제의신용을이용하야다수발매코저하나간상배의범위와문구등을근사히모방하야팡고하며근리한약능으로제위를미혹하난재다수하오니반드시(상호)와주소를주의하샤와실맘됨이업게하심바라나이다

京城府禮智洞 二十五番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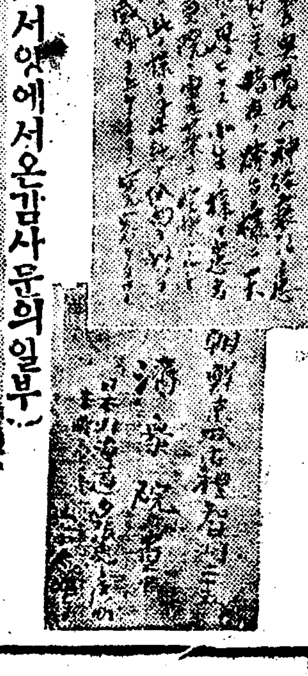
內外科及花柳病科 濟衆院

振替京城一五二二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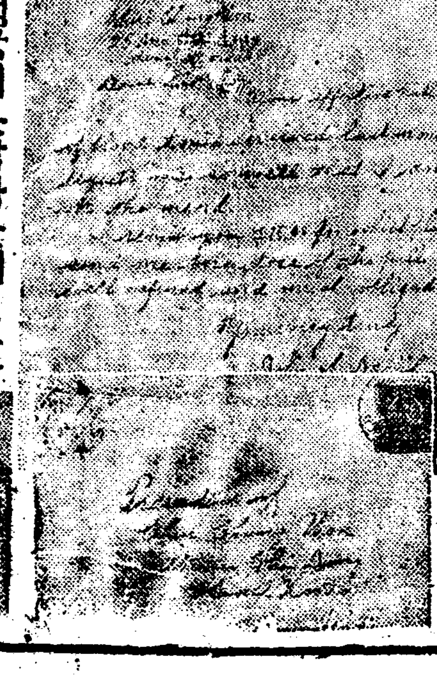
매일각처에서답지하는 병을곳치고깃버하는감사문의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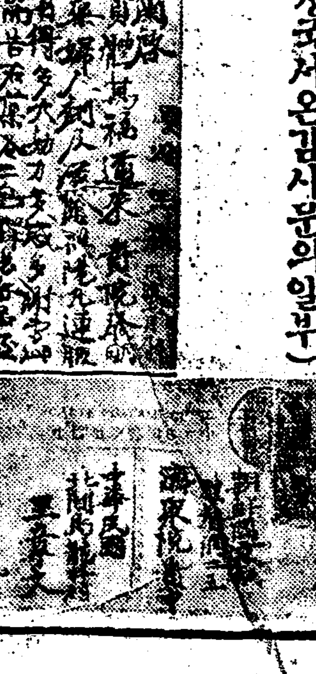
(미국서온감사문의일부)



(일본서온감사문의일부)



(서양에서온감사문의일부)



(청국서온감사문의일부)

詩壇의 前途

梁柱東

新年에際하야 過去一年間우리詩壇의 槪況을 評說코저생각하엿스나 左右에參考件이업기때문에 不得已「詩壇의前途」란題目아레서 詩壇에對한몃가지感想 或은意見을쓰고저한다 이것은 오로지 詩壇의前途를爲하야 우리가取할바길을 筆者一家見으로서 提示코저함이나 亦是詩壇昨今의 狀況을 觀하야서 職納한것임으로 兼하야 現詩壇에對한評說도되리라생각한다

다음에먼저쓰려는것은 詩壇現狀에對한 不滿과 및그것의匡正策이다 그럼으로 이글을 一般讀者들에게보다 차라리詩壇人諸氏에게 需要되고싶흔것을 미리말하여둔다

×

詩壇의 近狀을바라보건대多少의詩壇人들이 健實히努力하고잇슴에도 不拘하고 말할수업을만치 零星한地境에 이른것은事實이다 文壇全體가 不振하는이판에 새삼스럽게 詩壇을云하는 迂闊하다할시모르되나는 特히 詩壇의現狀이散文壇에比하야 加一層索莫한것을말하고십다 現今의形便으로보아서는 文壇上에 果然詩壇이란 獨立的存在가 의심스러울만큼이다 그러면 詩壇의存在가 微弱하게된 이理由는어되잇는가 詩壇의萎靡不振!이理由를생각건대 內的으로外的으로 그原因은 여러가지라할것이다 爲先 詩壇이란것의그存在가 疑心스럽다는말은 한편으로는 詩壇自體의貧弱——다시말하면 詩壇人들의 無能力을 意味하는것이 事實되려니와 또한편으로생각건대 詩壇 或은詩에對한 民衆의認識이 어려다는것을意味함이다 前者에關하야는 以下에말하고저생각거니와 爲先 나의注意를쓰는것은 後者——即民衆의詩壇認識에關한問題다

詩壇에對한 民衆의認識이적은것은 詩壇의興替消長에 主要原因이된다 만일 一般民衆이 詩壇의存在를 無視하거나 또는等閑視하거나 或은甚至於 詩란것의需要를 늣기지안는다하면 詩壇은存在할理由도업고 또한存在할수도 업을것이다 아모리 詩壇에서名篇佳作을 쉬내이기로서니 그것이民衆에게 無視等閑視된다면 詩壇價値도서는 爲先소용업는것이라하지 안흘수업다

一般이 詩壇에對하야 冷淡한것은 내意見에依컨대 大槪두가지로大別할수잇스리라한다 첫재는 엇던一部에서도모지詩란것을理解치못함으로詩壇에對하야冷淡한것인데 이것은民衆의敎養이 不足한所致요 둘재는 詩壇人의詩品이 低劣하거나 或은民衆에게 投合되지못하는故로 一般이 詩壇을 대수럽게 보지안는것이니 이것은純然히 詩壇人의無能力한 所以라생각한다

以上에말한바를 括言컨댄다음과갓다

詩壇의不振하는原因

- 內的 詩壇自體의貧弱 (詩壇人의無能力)
- 外的 一般의詩壇認識不足 (一般의無敎養) (詩壇人의無能力)

簡單히쓰자면 이러하다 試中詩壇人의無能力한것은 內外으로 根本的原因이되는것이니 여기에對하야는 絶對히우리의努力을 기다리는것이다 以下에말하려하는것도 이方面에잇서서 우리가 어떠한길을取해야할가의 問題이다 그리고一般의無敎養한것은 詩壇의興旺을 沮害하는바가 적지안을것이나 이는長久한時間과 敎育的感化를기다려서야 비로소 解決할수잇는問題인즉 여기서 長提할必要가 업스리라생각한다

一般의 詩壇認識이不足한것에對하야 또한가지特히 注意할만한것은 現代란時代가根本的으로 散文時代에 屬함으로서 一般의嗜好가 全然히散文으로 偏倚한結果 必然的으로 詩란것을 等閑視하게된다는것이다 現代는 確實히散文의時代이다 詩의凋落한時代이다그럼으로서 現代에잇서서 詩壇이 散文壇보다 遜色이만코詩의民衆的需要가 散文의그것보다 훨신더적은것이 事實이다 나는이散文時代란것에對하야 몃마듸考證說을 허비하려한다

×

現代가 散文時代라함은 何必朝鮮의現狀만이 그러타함이아닐나 이것은現今의萬國文壇의 現狀을보드래도 그러치안음이업나 쉬웁게 日本文壇이나 歐洲文壇을 보드래도 文壇의中心勢力은 小說이나戲曲가튼 散文界에잇는것이 事實이다 詩壇은 거위文壇上의地位를 일코詩人의 文壇的勢力은 漸次驅逐되는모양이다

그런데 이러한事實이 언제부터始作되얏느냐하면 古代부터가아니오 即最近代乃至現代에 잇서서 그러한것이다古代에는 現今과는 正反對로詩가文學을代表할만치 詩壇의地位가 旺盛하엿든것이다 이것을暫間 歷史的으로考査하건댄古代에잇서서는 例하면希臘에서나 羅馬에서나 詩가곳文學全體를 形成하엿고 現今의小說戲曲따위는 『호-머-』『버-질』等大詩人의『에픽』의支配下에잇든것이다

中世에잇서서도 그러하엿다 近代文藝復興以後에 始作된새로운 物質文明이라는것노 十七八世紀를지나十九世紀떼半에이르기까지 오히려 文明의가장절은『로맨티시즘』의時代를만들엇다 그런대詩란것의本質은 그自體가『로맨티시즘』의것임으로 이점은『로맨티시즘』의時代야말로 스사로 敍情詩時代를만들것이다 누구나하는말이지만 十九世紀는 物質文明의勃興期이엇슴에도 不拘하고 오히려詩人의 全盛時代이엇다 『꾀-테』『실레르』『키-츠』『하이네』를 筆頭로하야 世紀末의諸詩人 例하면『베를렌』『보-들레르』等 大詩人이 輩出한것은 實로 十九世紀의일이다

이와가티 近代에잇서서도十九世紀까지는 確實히『詩의時代』라고 할수가잇섯다 따라서諸國의 文壇은 乃至文化外지라도 그中心이 敍情詩에잇슨것이事實이오 小說 戲曲가튼 散文은 低級 卑俗한것所謂『프로-제이크』한것이라 생각하엿든것이다 當時漸次勢力을어더오든 自然小說家들의 地位도亦是 詩人에게比하면 一段下位에잇든것이明白하다 이러한말은 歐洲文壇뿐아니다 支那나日本에도 同一한것이오 朝鮮에서도同然하다 朝鮮에서는古來로 詩人은尊敬을바덧스되 小說家는 卑俗人이라하기때문에 匿名作을하지안흐면 안되엇슬만치 詩歌의例를 지엇다 그러나 이에對하야는 만흔말을略하기로한다

그런데 一轉하야 現代에나려보건댄 人類의文明은 그靑春時代를지나 中年期로들어섯기때문에 사람의情緖는『로맨틱』한것으로부터『리알리스틱』한것으로 自己自身의現實的思想 情緖도말미암아 在來의 空想的인 詩的모든要素에對한 嗜好를바리고小說이나戲曲가튼 現實世界로 向하게된것이다

다시말하면 現代는詩의時代로부터『散文의時代』로一變한것이며 따라서『詩의沒落時代』가되고만것이다 會前에文壇을主宰하든 詩人의作品은 散文에게 壓倒한배되야 小說戲曲가튼것이 現代의文化를 代表하게된것은 이外닭이다

現代는 散文의時代이다 따라서現代人의嗜好는 散文에偏한觀이잇다 極端으로말하자면人類의思想感情이 一變하기前에는現代에잇서서 詩가散文을壓倒할수는업다 다시말하면 現代에잇서서詩는 沒落될運命을가젓다고 誇言할수가잇다 現代에서 詩는 마치 政治上에서말하는 被征服群의하나이다 이被征服者가 征服者를이겨내라면 人類의 文化思想이 根本的으로 一變되지안흐면안될일이니 이는매우 어려운일이라하지안흘수가 업다

現代에잇서서 詩는 이러한不利한地位에잇다 그러나아모리不利한處地에잇다할지라도苟히詩가 存在하는限에서는 그한 詩란것이 永永沒落하고마는날이면 할수업는노릇이나 그殘喘이라도 잇는한은 우리詩人들이 그挽回策 或은獨立性을 主張하고 講究하지안흘수가 업다 그러면 그挽回策은 어듸잇는가를 爲先생각해볼 必要가잇다

×

散文時代에잇서서 詩의取할길은 두가지라할것이다 하나는 散文時代인 現代民衆의嗜好에 맛고그에阿諛하기爲하야詩를 散文에接近케함이다 다시말하면 詩의散文化가 그것이다 (近代에니러난所謂散文詩는 這間의消息을證左하는것이다) 詩를散文化함으로因하야 換言하면 詩가散文에同化되고降伏함으로因하야 詩에對한民衆의需要를 增加코저함이現代[illegible]上, 또한가지는 어디까지든지 詩의根本義를主張하며詩의獨立性을 維持하면서 民衆에게接近할만한 다른方策을講究하려는것이다

民衆的嗜好를 增大케하고 詩에對한民衆의認識을 더하게하라는見地로보아 압혀말한두가지態度中에 前者는積極的이오 後者는消極的이라고 할수잇다 그러나 詩自體로보아서는 前者가消極的이오後者가 積極的이다 왜그러냐하면 詩의散文化는 畢竟詩自體의沒落과 散文의全勝을意味하는 까닭이다

讀者는 여긔이르러 詩에取할바 이두가지態度에就하야左祖或은右祖을할것이다 或은兩時에 左右祖을 할수도잇슬것이다 그러나 나는나의一家見으로서보아 어듸까지든지 詩의獨立性을主張하야後者에 加擔하기를 躊躇치안는다 그所以는 알에와갓다

詩의散文化는 그究極에잇서서는 畢竟 詩의存在意義가업서지게될것을 몬저말하고싶다 詩가 만일온전히 散文化될것가트면 詩는 散文以外의獨立的存在로는何等의 意義가업슬것이다 一般詩가散文詩로化하고 散文詩가 純然한散文으로도온전히化하고말것은 推測하기에어렵지안타 現代의散文詩人들은 오죽 그詩想(Poteic idea)만을尊重한다고 主張하나 이는 畢竟掩耳盜鈴 이다 詩는 그詩想만으로成立될것이아니오 그形式으로서비로소 獨立的存在를許할수잇는까닭이다

나는詩가散文에게侵蝕된것을 안다 그러나그殘喘이나마 오히려獨立的價分을가진限에서는 尙後까지 로서의本義를 主唱하고십다 다시말하면 나는 詩의存在를爲하야 詩의散文化를 反對하고십흔단말이다 設使그것이將來에잇서서 詩의滅亡을 而來케함이잇다하드다도 오히려强烈한殉敎的精神을 絶叫하고십다 詩는 어데까지詩다 만일 詩를 散文化하는詩人이잇다하면 나는그를當然히 散文家로 指稱하고십다

×

말이 너무長漫되고 더구나 許諾한 朝鮮詩壇의現狀을이즌感이잇다 다시우리詩壇에 바라보아생각하건대 우리詩壇에도 未嘗不 詩의散文化를 도모하는詩人이만타고할수가잇다 아니 그뿐만아니라 朝鮮詩의形式은 漸次로 散文化하는傾向이잇다 朝鮮詩의 根本的形式約束이업는것을 奇貨로하야 詩는 나날히散文이 接近하야간다 내自身도그런例가 잇는것으로본다 그러나 이것은내意見에依하건대 詩의本義를이저바린錯誤다 斷言하고십다 더구나 現今의朝鮮詩는 그創始途程에잇는것을 이즐수가업다 創始途程에서는 무엇보담도 形式的韻律論을 決定할必要가잇다 그런데도不拘하고 只今부터 散文化만詩를 作備의始도하게한다면 이는 朝鮮詩의早老를 意味함인同時에決코 詩의本護를 尊重하고 참된成長을 도모하는것이라 할수가업다 詩이기때문에 더구나 創始過程에잇는 朝鮮詩이기때문에 나는 더욱더욱詩의散文化를拒否하고십다 現詩壇에는 자못『프로쎄이크』란詩人이만타 想부터 非詩的인것을 詩品이라고 내놋는詩人도잇거니와 詩形으로보아 全然히散文그대로를 行만난호아서 詩라고하는이가잇다 詩란것이그形이나 想이나 오로지 詩로서의特質이 잇는것을모르는詩人은 速히散文界로나가는것이 조흘듯하다 더구나 創始期에잇는 現詩壇에그러한詩가 詩도行世하는것은사람으로하여금 詩의獨立性을의심케함이잇다

×

以上에말한것은 詩를時代에맛도록 民衆嗜好에맛도록 하기爲하야 散文化하지못한다는것이다 散文時代에서詩를 우리詩人들은 이러한[illegible]속에서 苦悶한다 散文化할必요를 가젓느때도不拘하고 詩는 그獨立性을保하야 어듸까지든지 詩的이어야한다는 이것이詩人의煩悶일것이다 만일 나의이意見이 正當하다할진대 詩壇의旺盛을爲하야 接近하면 民衆對詩壇의 擴大를爲하야 우리가取할길은 무엇인가? 이것이 第二의問題이다

나는 여러傍說을 略하고이問題에關한 最上의手段으로詩의民謠化를 말하고저한다 詩의民衆化의手段으로본 우리가詩의滅亡을 意味하는 散文化的方法을바리고 宜當히 民衆의感情民衆의 情緖를 基調로한民謠詩的方法을 取해야할것이라고 생각한다

詩의民謠化! 이것이야말로 詩가 民衆에게 接近하는最後의手段이다 散文化가조흔것은詩의形式을 破壞하는 惡弊가잇지만 詩의民謠化는 도로혀그것을 調整하는長點이다 그러나여긔서 注意를 要하는것은 이『民謠化』라는말이다 勿論 이말가온데에는 民謠詩를 高調하는 意味가 잇지만 그러타고 今後의詩는全部 民謠詩라야 한다는것은 아니다 要컨대 民衆의思想感情및그의呼吸調律을 基調로한詩篇이면足하단 말이다 그리 하자면 詩는必然的으로도 平易하고도 一定한韻律이잇스며 普通的이면서도 直觀的咏嘆的인것을 要求하게될것이다 나는날의便宜上으로 如上의美點을가진詩篇을 一括하야 民謠化한詩篇이라 한것이다

×

말은 다시冒頭에ᄭᅳᆺ것으로도라간다 우리詩壇不振의 最大原因은 무엇보다도 詩壇自體의貧弱 詩人들의無能力이다그 一例로 各誌上에最近發表되는 所謂詩作을보드래도 都大體무슨소린지도알수업는 語不成說의詩가만타 朝鮮의民謠或은 唯一의國民文學인『朝鮮詩人國風』가운데를 보드래도 그런例는 非常에 散在한다 이런詩篇이내면서 詩壇 詩人곳곳하야 民衆에게 그存在를許하야달라는것은 너무나 沒分曉한일이다

내가 詩作에對하야 現詩人의一部에게 주고십흔말은詩를지을째에 먼저 詩想다음詩想을 取할바 다음에 그表現을 무엇보다도平易하게 韻律잇게하는것이다 (散文的인 想파表現을拒否함은 前述파가트니 重複치안는다) 되지도안은 象徵이나또는 語位倒錯法가든것을 하라다가는 도도혀 語不成說이되고마는 例가만타그려고 그趣에對하야는 特殊한感覺이나 或은 好尙的修辭에스사로解한을避하고 오로자眞人普通의 民衆本位의情緖를基調도하라고 말하고십마 於是乎 압헤말한 詩의民謠化는더욱더必要한것인同時을늣기게되니 詩의實을向上식히고 散文化的傾向의拒否로因하야 詩의獨立性을 保持하는一方 詩의民謠化로는 民衆과詩와의 距離를 接近케할수잇다 이가든理想을우리가 實現하는곳에서詩壇의存續或은旺盛이 비도소可能할수잇다는것이다 만일이와 反對의傾向으로서 나간다면詩壇의前途는 다만衰滅의一途가잇슬뿐이다 또한만일 詩壇自體의向上을도모하지안코부즈럽시 一般의詩的敎養이업는것만恨하는것은可笑도운일이라할것이다

散文時代!現代人은 根本的으로 詩와는 因緣이깁지못한것이 事實이다 詩는 散文時代에잇서서 確實히不利한境遇에 노여잇다 그러나詩人은散文時代에 處하엿슬사록 한층더殉敎的精神과 回天的努力을 要하는것이다 그러한精神努力으로서 우리는 오히려 詩壇의獨立을 맘할수가잇고그것의 興旺을期待할수도잇스리라한다

頭緖가 지못어지러운 이拙文을 여긔서끈키로 하는 나는 다음에 例證의 詩를 引用코저생각한다 이들의大部分은 『朝鮮詩人選集』中에서 뽑은것인데 내가 朝鮮詩에말한 詩의 散文化와民謠化 또는 律格的 非律格的 平易와苦澁 特殊的과 普通的等의例도 될수잇는 詩篇들이다

×

廢墟의祭壇에 갈이별는것은더리블고
편발로 紫服입은處女들의
발도업시 歡喜히돌리는
木槿香피기를 둥볼은
죽음가티소래업는 廢墟의하늘에
삿도맛도업는깁흔밤의어둠 속
바람한점 아니이는데
압흐게도 憂鬱하고 嚴肅하고도
임닙는
曲線의가는『집』을차저
헤매이다 헤매이다!(下畧)

(吳相淳氏「廢墟의祭壇」)

비가 옵니다
밤은고요히 짓을버리고
벼는 돌우에 속삭입니다
물래짓거리는 병아리가려
이즈러진달이 실낫갓고
별에서도 봄이흐를듯이
따뜻한바람이 부더니
오늘은 이어둔밤을 비가옵니다(下畧)

(요한氏「비소리」)

불에싸저죽으려고 다리에서 뛰려할적에
巡査가 뒷덜미를 붓잡고 조금만기다리라하오
本署에실려가서 돗기실은說諭를밧고
도라오는길에 小便이急하야
(下畧)

(李一氏「運命見」)

가다지 쩽강하거든요
은봉제 쩽강하거든요
며동강 십리나룻길에
물길려온걸 말아주소
장산고지는 멀두고지
배못간다는 말도잇지
아 산설고 물도서데
나부엇하려 여긔왓나

(素月氏「竹枝詞」)

나는지금 獎忠壇에왓습니다
이곳은녯날내가 그대를기다릴때
봄하늘이 파란웃음을 보내든곳입니다(下畧)

(岸曙氏「가을」)

서울니리남산에 나리는비는
천줄기라만줄기 구억만줄기
푸르른 솔밧헤는 예두진비가
장충단 헌집웅엔 구슬흔빗새
멀리보면 로흥별 십리나먼데
모래관에 오는비 강에오는비
가다가 되오는배 사공이뉘고
셤에저즌 뵈옷이 다시젓것다(下畧)

(李殷相氏「南山에올라」)

貫齋 李道榮氏 筆

겨울의 서울

抱石

◇

늣가을나는 迎秋門압길을밟아 紫霞人골을을다오며 문득 北岳山을바라보며 仁王山을바라보며

『귀귀귀 仁王山北岳山말봉이城넘어로 오래지안아서 찬바람이 마치추위人나라張襲軍처럼 서울을막陷落식히러城을고여넘어 물밀놋다처오겟지』

이런늣김이 휙지나처갓섯다추위의압잡이——아니 前衛隊인 서리人바람이落葉을보라처지나갈때에 나는겨울의恐怖를미리늣기고 은근히떨지아니할수업섯다

하던것이 서울은果然추위에 陷落이되고 말엇다 完全히占領되고말엇다 거리거리 골목골목 집집마다 뜰뜰마다 찬바람이 휩돌어섯다

『마 지커라!』하는 號令을바든듯이 휘돌며아우성치며 눈을뿌리며 먼지를퍼치며 동에업힌아기 손동을얼리며 거지의오픔장이를 맛못게하며 못사람을 마치 궁게로차저드는 집승모양으로 허리를구부정하야가지고 종종걸음울치게하며 ……………… 이리하야 서울은 겨울의都會가 되고말엇다

봄 녀름 가을을두고 착외부러커가던서울 아니예世紀를누고 착외부러커가던서울 倦怠와疲困게놀리던서울은 인제 겨울을맛나게되얏다 추위의恐怖 飢餓의恐怖는 무섭게도 이人間들우에 닥치게되얏다

封建時代의遺物이다마는 벼술던분에 도량이나 쌀섬이나 모앗던者들은 뜨뜻한커의알에人목에 궁둥이를부치고안젓스리라 그러나 그가운데에도 날난슈監장이를 녯날承旨나參判이니하는者들——배무돈두두막이 배무는宕巾에 언발을한데모으고 冷을떨떨고잇는 遺老遺生들——封建時代唯一의標本物들이 이곳에서 찔고잇슬것보라 이것이 지금 이자을줄맛는老서울, 아니 老朝鮮의꼴이란다

갑헐안外套에 그래도鍍金眼鏡은 코허리에걸고 조타한엄골 헤멀고두눈 그러나 입으로는 千兩萬兩을부른다 이것이 멧해前에 敎育家요 軍人이오 志士요 紳士요 지금은 浮浪者요 거저紳士요하는 近代朝鮮의遺物들의꼴이란나

흔外套속에 코를파뭇고 그래도한손에몽둥이를들고 해여진구두에 언발을커벅커벅내노며 『동무!』『自然生長에서 目的意識性 으로!』『經濟鬪爭에서 政治鬪爭으로!』……………思想運動에서 政治運動으로!』 이것은 當代서울 아니새서울 새朝鮮을걸하는누리들의꼴이다

발발떠는손에 책보를 들고 흘무처리고는 몸에 맞도대여보지도못하고 떠려진버선에 찬『고무』신을신은 어린小學生 이것이未來朝鮮의主人될이의꼴이란다

여긔서 하나를그려보자 검정수목두루마기 먼지안진 해묵은中折帽子 진날에부든로『도다거신』지못한 여전구두 멋업시 두손을 엽구리에찌르고 터덜터덜것는것은 이꼴도 當代朝鮮사나의꼴——나의꼴이다

엇잿던 이무리들의우에는겨울이닥쳣다 추위다 바람이다 눈이다 飢餓다 ××이다 ××이다 暗黑이다!

겨울의서울은 썬다 全朝鮮은 썬다 추위에暗黑에썬다? 倦怠에 疲弊에 無爲에 陋卑에 ××에 ××에 ××에 쇠달리고 착외부러젓던朝鮮은 서울은 겨울이라는暴君이 毒手를내어둘러 餘地업시 지치(凍死)게되다

추워! 飢餓! ××! 暗黑!

바람만 소리친다 눈과먼지 날뛴다 빈터건가튼서울의거리에서…… 사람은 모다 외부러젓느냐? 모다 죽엇느냐? 自然과한가지 날뛰며자?바람가티 소리치며 어데로올人間은 모다 어데로갓느냐 라가러 처달린산침승은 모다 죽엇느냐?

『썩룩크』의 詩『엽는사람』에나타나는 ×××서울이 눈압헤나뷔는光景이 눈에자나가자날은날의 마음과 사람의마음이 한가지 궁둘거리는光景이잇가리지나간다

◇

아아 이엉에도 이서울에도 그와가튼 自然과人間들의『힘』의『하모니』를볼수업슬가? 작월혼『힘』을가진自然만을도두울고말것이냐? 이속에서사는人間은 녕영죽고 말것이냐?

몃해전일이다 나도이따분한 雰圍氣속에서하도갑갑하야 서울엉차게소리치며 장안에거리를내닷드라 한번 나닐렷스면 조켓다!』

『귀귀귀 三角山이 火山이나되엿스면 조켓다』

그러나이날이 해가되야도『해태』나 울며萬萬萬하며 三角山이 火山되리만 不無하다사람도『해태』나 마찬가지로우는이업섯고 사람의가능도 三角山火山가터저본일이업섯다 예나 마찬가지로 또한 따분하고 답답하고 外부러질뿐이다

아조추고말가? 아조飢饑한말가? 暗黑한말가? 이추위속에서 이飢饑속에서 이××속에서…… 아니다光明이잇다! 살길이잇다!

朝鮮은 朝鮮의朝鮮이아니다 地球우의世界우의朝鮮이다 白衣人은 朝鮮의白衣人이아니다 世界우의 全人類사이의白衣人이다

◇

世界는움지긴다 人類는 움지긴다 歷史的必然한 約束잇게 『明日로!』『明日로!』『光明으로!光明으로!』하고 움지이엉에도 이무리들도 움지기기시작한다 分明히 움지긴다 거짓말아니다 誇張도아니다

×

아즉微微하나마分明히옹지기가 시작하얏다 눈씻고 새現實을 分明히내려다보라! 光明은 압헤잇다!나아가자!시름와서 다시 奮鬪할것은업다 다만나갈뿐이다 이겨울 이추위 이飢饑이썩은 이暗黑에떠는 이서울 그러나未來의 겨울과한가지 바람과한가지 사람과한가지새로움서울 未來의겨울의서울! 우리의압헤잇다!

——一九二六、一二、二六——

過去一年 內外日誌(二)

◇十一日=仁川府花町에火災로全燒七戶▲鎭、郡、邵瓦에外〇〇團一名被殺▲國際聯盟은獨逸의聯盟參加可決

◇十二日=間島撫井村大火災 同胞損害八萬圓

◇十三日=在滿朝鮮人學校三十餘校閉校命令

◇十四日=滿州記者團創立▲求禮郡求永勞動會創立▲中國天津封鎖問題로各國公使는最後通牒 日本은軍艦二隻急派

三月 山淸의大火 國際聯盟의獨逸加入

◇十五日=慶南衡平大會三嘉에開催

◇十六日=高城事件主犯嚴泰燮은元山에서脫獄逃走

◇十七日=木浦製油工罷業團決死隊組織 工場襲擊▲在奉天同胞相扶會組織

◇十八日=英國皇太子及首相『쏄든』은爆彈被擊▲中國北京學生들은列國最後通牒의回答에憤慨 執政府에突入 守備兵과衝突 北京全市에戒嚴令發布

◇十九日=東亞日報宋鎭禹、金鐵中兩氏는被訴▲免囚保護會發起▲中國政府에서左傾分子逮捕令發布▲希臘大統領『콘도리오지스』氏辭職

◇二十日=木浦製油工罷業團工場襲擊事件關係檢擧 靑年勞働各團體各新聞支局搜索▲中國賈德耀內閣總辭職

◇廿一日=京電料金問題로市民大會開催▲全國印工總同盟創立▲京城靑年會의一切集會禁止▲朝鮮鐵工總同盟創立▲仁川精米職工賃金問題로罷業▲醴泉記者團創立▲慶北記者大會發起▲大邱女子高等普通學校設立認可▲在日朝鮮勞働總同盟關東聯合會創立

◇廿二日=咸興印刷職工總罷業首謀者七名檢束

◇廿三日=大邱에서金柱奎外六人의判決言渡▲中國李景林軍天津占領▲中國曹錕氏釋放

◇廿四日=書畫協會主催의第六回書畫展覽會開催▲中央社會團體協會發起會開催▲東亞日報筆禍事件體刑求刑▲開城各團體가東拓小作民慘狀報告演說會聯合開催▲中國國民軍北京撤退

◇廿五日=慶北軍大事件徐東日의公判開廷▲新義州憲兵分隊에拳銃靑年三名被逮▲巨文島近海에서暴風에十四人覆船溺死▲咸南利原郡遮湖港에서暴風에漁船覆沒 漁夫五名慘死▲朴烈夫婦에게死刑言渡 特旨로減一等 無期懲役▲中國長沙에排日英大示威運動

◇廿六日=比律賓獨立請願提出

◇廿七日=定州農民聯合會創立▲京義靑年聯盟은總會에서大會是創立

◇廿八日=全鮮勞農聯盟第三回定期總會를開催▲求禮農民共濟會創立▲中國國民軍南口方面에總退却

◇廿九日=[illegible]

◇卅日=[illegible]市民大會開催▲[illegible]救濟金二萬圓을北風會에서外國饑饉救濟에[illegible]▲滿洲赤化計劃으로朝鮮軍을組織▲元山府內吉田、三新堂兩印工罷業

◇卅一日=慶北事件判決言渡▲羅馬尼亞『아브레스크』新內閣成立

四月

◇一日=東亞日報筆禍事件의宋鎭禹懲役八個月、金鐵中禁錮四個月言渡▲宮三面事件解決▲京城女子商業學校設立認可▲平南警察部에서軍大犯人盧元紹逮捕、不穩文書多數押收

◇二日=仁川朝鮮燐寸株式會社職工盟罷▲英陽靑年聯盟創立

◇三日=露領黑龍州玉島에朝鮮人의移住地域決定▲印度回回敎徒大叛亂

◇四日=全北勞動聯盟創立

◇五日=東三省에서朝鮮人의移住屆手數料三百四十五萬圓徵收

四月 純宗皇帝의昇遐 印度의宗教大戰

◇六日=第三國際共產黨關係者檢擧事件오로黃海道一帶에大檢擧▲醴泉小作爭議事件公判開廷▲東京宮城에侵入하라는朝鮮青年朴南撤이晉山署에被逮

◇七日=露國饑饉救濟金分配로救濟會委員派遣▲慶寶洞에서某處大犯靑年을逮捕、押收

◇八日=王世子殿下와[illegible]還御▲大邱에서學生[illegible]等判決言渡

◇九日=孟山、順川、德川三郡火田民大會開催▲永興火田民三千戶放逐▲露領『라바시』에서朝鮮人二十六名被殺

◇十日=平南各地에雹災로大騷動▲鳳山郡內羅山의二百餘町步燒失▲忠南禮山忠守火災▲中國段執政脫走、曹錕氏釋放 馮玉祥軍이北京에戒嚴令發布、賈德耀氏執政代理就任受諾

◇十一日=漢陽靑年會主催의全朝鮮靑年雄辯大會禁止▲金泉靑年이衡平社員과大亂鬪▲朝鮮社會團體中央協議會準備會開催▲希臘大統領『팡카로스』氏當選

◇十二日=江景記者團創立▲長春警察이正義府員을包圍攻擊 七名을逮捕▲大阪朝鮮人勞働組合에서示威運動中四十餘名檢束

◇十三日=平壤海軍炭鑛爆發、朝鮮人鑛夫九名即死▲光州西倉面에서新舊小作人間爭鬪로一名打殺

◇十四日=京城電氣會社에서는電氣料金減下決定▲鏡城高普二、三、四學年生盟休▲全北任實郡東津水利組合의堰堤破壞로村民과工夫間에格鬪發生、村民多數被傷

◇十五日=平壤農業學校二、三、學年生大亂鬪▲在日本朝鮮勞働總同盟第二回總會開催

◇十六日=慶南記者大會開催▲比律賓獨立政策獨立決議案이米國下院에提出▲露領沿海州在住朝鮮人의軍事敎育施行決議

◇十七日=中國國務總理賈德耀氏辭表提出 執政段祺瑞氏下野決定▲鏡城郡〇〇團二名鍾南署에逮捕▲咸北水南駐在所에서軍大犯人二名逮捕 武器押收

◇十八日=安東縣에서朝鮮人四名被殺▲務安郡都草面小作爭議▲文在詰事件公判開廷

◇十九日=黃海道記者團第一回執行委員會開催▲黃湖記者大會開催▲中國顏惠慶攝政內閣成立

◇二十日=奬忠壇行軍路開通▲京城製絲女工이賃金問題로盟罷▲서울靑年會主催의『레닌』講座禁止▲京畿道警[illegible]▲滿洲政府에서非歸化朝鮮人耕地分與決定▲露兵이烏蘇里에서朝鮮人二名銃殺

◇廿二日=朝鮮勞農總同盟主催의科學大講演會開催▲軍資募集員數名慶州에서被逮

◇廿四日=京城靑年會에關한集會禁止解除▲全北記者大會를裡山에開催禁止

◇廿五日=午後六時十分純宗皇帝昇遐 昌德宮大造殿▲波斯新王『리사칸、파루이사나』戴冠式擧行

◇廿七日=市內各學校休學

◇廿八日=國葬은內式國葬으로決定▲朝鮮民衆黨奉悼事件尹又烈外公判開廷▲昌德宮金虎門前에서宋學先이日本人高山等行 佐藤虎次郞 池田長太郞殺害▲永興農業靑年會委員全部檢擧

◇廿九日=公園洞、敦化門前一帶에武裝警官이警戒▲『리프』共和國이佛國과西班牙에自治獨立要求

◇卅日=洪城記者團創立

五月

◇一日=國喪頒布後三日間[illegible]犯萬餘件▲國喪成服日男女學校休學▲中國曹錕氏大總統正式退位

◇二日=春川記者團合同總會▲鎭南浦郡三和面紡工事人夫가賃金問題로罷業

◇四日=英國炭坑夫三百六十餘萬人總罷業 鐵道運轉中止

◇五日=日本人國粹黨員의昌德宮突入事件으로朝鮮各界有志는若槻首相一木宮相宇垣總督에게對策講究要求書를發送▲純宗陵寢은金谷으로決定▲虛無黨尹又烈事件判決言渡

◇六日=中國北京航空學校教授朝鮮飛行家徐曰甫氏墜落慘死▲波蘭內閣總辭職

◇七日=本報筆禍事件控訴公判判決言渡▲永登浦京城紡績會社職工盟罷▲在滿洲同胞가中國官憲의壓迫으로中國人과賣買斷絶決議▲滿洲歸抗決三萬名罷業

◇八日=金思國氏逝去▲慶北事件의靑年二十餘名大邱에押送

◇十日=中國敎育視察團員十餘人入京▲北滿靑年總同盟創立總會開催▲米國海員組合은英國炭抗夫罷業同情으로總罷業

◇十一日=全朝鮮公職者大會開催▲全北의阿片密取締令發表▲黃海道內에〇〇團潛入▲中國顏惠慶內閣實現

◇十二日=慶北東海岸에暴風雨으로三十七戶倒壞▲大阪勞働組合總同盟은罷業中止를命令▲波蘭에革命勃發

◇十三日=中國에서潛入한靑年二名檢擧▲獨逸內閣總辭職

◇十四日=義州에서[illegible]員金泰源死刑言渡▲[illegible]島民이騷動蜂起▲牙山邑內大火災로二十三戶全燒

◇十五日=釜山府朝鮮精米會社火災로損害額三十餘萬圓▲勞働者三百名失職▲江西軍大犯人呂善、李基榮等判決言渡▲新義州靑年會員十五名檢擧▲波蘭大統領辭職

◇十六日=全朝鮮專門學校卒業生雄辯大會講演會中途解散▲京畿道警察部에서臨時政府員李朴二人逮捕▲北京外交團은太沽自由航行의保障을最後通牒▲波蘭에서는新內閣成立

◇十七日=[illegible]新內閣成立

◇十八日=濱松에서刑事會員이日本樂器爭議罷業

◇十九日=中國廣東에서朝鮮人軍隊를組織

◇二十日=白耳義『자스파』新內閣組織

◇廿三日=都染洞에서慶北事件關係者五名逮捕▲大邱에押送▲北靑記者團創立

◇廿四日=北海道十勝監獄[illegible]이爆發

◇廿五日=慶北秘密團事件一部를檢事局에送致 全州安子興等普通學校設立許可▲佛國은『리프』軍의講和條件을拒絶

◇廿六日=平北雲山郡에〇〇團員과警官隊衝突 [illegible]以下六名

◇廿八日=慶南一帶暴雨로大洪水▲中國上海內外綿十四工場總罷業

以下는次號에

死線에陷한 朝鮮民族의活路

標語는무엇、實行은如何

자긔의생활상노동것 이엇으도남에게떨어저잇는때라도 항상남보담낫게살라고발버둥을처야것거든무엇으로보든지한가지도남만못한우리의방금형편으로는살음을위하야싸우기에 남보담배곱절갑절의힘이잇서야할것이다 만일한조한갈음이라도허수한때가잇고잘못되는수가잇다하면우리는 참아말못할파멸의구렁에떨어지고말것이다 우리의생활이아닌가우리는 어데서한방울물을어든가 민족뎍으로 살길이무엇이며어대한표어와실행방법이무엇인가 이제각방면명사의의견을 소개하는바이다 새해새복을마지하는 우리의압헤는광휘히질길무궁한봄는 다처온다 가운인도사람의표어가되자상의의생긔는이에움지안는가

趨向先定
대중의맘을더듬는
◇李鍾麟氏談 天道敎宗務委員

세상은 시로히운세상입니다 동서양을 물론하고 여간시로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째것조는듯죽은듯 괴치업든 조선도인제와서는 팍동요되는 모양입니다 좌경이나 우경이나 타협이나비타협이니 무엇이니 무엇이니하야 떰적어리는것은 사실이외다 먹을것이업서 사방으로헤매는것도 우리라 먹으려고 허동대는것도여북하야 그렇습니까 그러나먹지못할것을 먹는것은 제혀명을제가 막는것이외다 우리는 무엇보다 허동대는 대중의맘을 가라안치고 추향을정해야할것입니다

니하여도 데일민족뎍(民族的)으도정신(精神)과 육데(肉體)를 다든나라의민족보다 큰튼히 하고 굿세게하여야 이무거운집을지고 일허날수 잇슬것이외다 다넘어가는 이목숨을 돌릴수잇슬것이외다 그럼으로 나는먼저 조선민족은이점에머하야 극력힘을써야되겟다합니다 속은엇지되엿든지 외형만으로도 남이보기에 긔운잇고힘세게 하게되

指導敎養
당면리의을선구
◇權泰東氏談 漢陽靑年聯盟員

우리 무산계급은 묵은해를보내고 새해를마지한대야 오족압박과고통의력사를 지엇슬뿐입니다 이와가티 해마다싸하노흔실패와 울분은산人뎀이가티 되엇습니다 우리는이에서 모든새사실을발견하야 미래의 모든희망을 그리는동시에 그실천(實踐)에서구더진 새로운리론과 단결이 결국에는권력군의 성벽을깨트리고야말것입니다 이런의미에서 우리는조선민족이 필연뎍으로 구하는구국의목뎍을 달성하는동시에 당면리익을 위하야 각방면 선구자의연합업는 지도와 투쟁뎍교양을 힘쓰는데에만 전민족의살길을개척할수잇슬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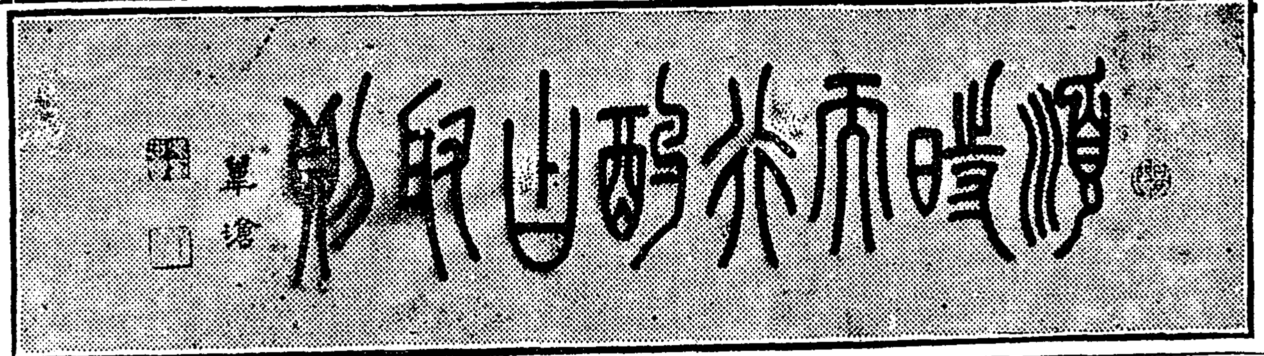
朝鮮第一
우리생로는이뿐
◇崔南善氏談

새삼스럽게 우리의살길을 무엇이라말삼하겟습닛가 그 나 나는말에의해조건을 잘조화 한다면오족우리의 사러갈길이 잇슬줄로생각합니다 곳 「조선으로돌아가자」「조선에서합하자」「조선의오늘일을 하자」의세가지이니 이세가지를합하면 조선뎨일이될것입니다 이외에 아무말도 할말슴이업습니다

第一尙武
첫재로유데건전
◇呂運弘氏談 朝鮮文武會幹部

우리민족은 오백년이래로 문(文)만을 숭상하고 무(武)를숭상치안흔 결과로쳔은 이나약(文弱)은이를 물론하고모다 문약(文弱)에흘러도모지 긔운이업습니다 더욱최근에와서는 모든정치뎍(政治的)경제뎍(經濟的)압박으로도 더욱이사람들은 긔운이업서보입니다 무엇이나 무엇이

엇스면조켓습니다



葦滄吳世昌氏筆

青年敎養
공동목표로전진
◇朴敬鎬氏談 新興靑年同盟委員

우리의살길이야 언제나 한가지 박게업슬것이지요 말하자면 직업뎍으로 항상 투쟁을는삼는 우리로서는 이에 새삼스럽게더말할것도업습니다 마는 다른나라 사람보다 특수한 환경에서살아나가는우리는 서는자긔(自己)의 압길을 개척하는데 피치못할책임을 포기치안는동시에 더구나 괴연뎍으로 형성될 세계상의중요한 역사를 차지한우리로서는 일만코 한만흔 지난해의모든경험을 진감삼아 신년부터는더일층새로운용긔를다하야새긔청년고양에힘쓰면은 의국 하고 덕될하도록 하야 전조선의 청년군중을

誠實勤勉
독일인을배우자
◇朴勝彬氏談 普成專門學校長

우리의생로는 전국 절망이라고 하겟습니다 그러나 인생의생노는 다만계산뎍으로만 타산할수 업는것이요 초계산뎍(超計算的)의 이니와요 우리의전도도 그리 비관할것은 업슬줄압니다 우리에게 큰교훈을주는것은 독일민족입니다 련합군에게 참패하야 과중한배상과 혹독한압박을바들째 독일의권도는 비관뎐이엇습니다 그러나 지금독일은 외인 불란서보담 낫지안습니까 우리도남과가티 살려면 독일민족의굿셈을 본바다야 하겟습니다 다독일인의 성실근면그것은 오즉우리의 하나의생도 입니다

하야 굿세조직과 단결로써위선 공동의 목표를 향하야용진히싸와나갈쓴입니다

朝鮮主義
남에게되동말자
◇李灌鎔氏談 延禧專門校敎授

우리의살길은 오즉 우리의손으로차자야겟습니다 남이 차저노흔살길은 우리의살길이 아닙니다「레닌」주의 는「레닌」주의요우리의 살길입니다 그러면우리는「조선민중의요구」를 무어보다도 존중히한다는「조선주의」를선던부터의 경구(警句)로합시다 여긔말한조선주의란것은 결코「그른거나올커나내나라다」는협착한국민주의 식이나인도를 무시하고 인류의발전을조장하는 데국주의식 조선주의를의미하는것은아닙니다

大衆團結
인류본위의회사
◇沈致寧氏談 京畿聯合會委員

조선사람의살길?말하거기참 막연합니다 우리는 산업장려를하자!문화향상을 하자!하는표어로살길을 찻자고 하는이도 잇스나 그것은 죽는사람의마음을위로하는 재료나 될다면몰라도 조선사람의 살길을찻는대는 가치업는 공론이될줄로 압니다 정치뎍으로 경제뎍으로 모다파산을당한 우리에게 산업이나문화가아모리 조타하야도 화중지병이지 무슨소용이 잇겟습니까?그러면 우리의 살길은어대잇는가?오즉현사회제도를떠난인류를본위로한 새사회가 아니면아니되리라고 단언합니다 그림으로 우리의 살길을찻기위하야압길을 개척하는데 대중뎍단결이완성되여야한다는것만위서말하려합니다

大同團結
그리고호상부조
◇吳兢善氏談 世富醫專校校監

지금의우리는 첫재 다각가지긔의직업데로 멸업에힘쓸것 둘재다른나라사람이 야바하든지 불의하든지간에 엇잿든 우리는우리의 고유한풍미속을 보존할것 셋재 호상부조에힘쓸것 넷재각각주의는 다를지라도 민족을위한다는 큰긔발압에에는 대동단결이되야 일제하여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는지부즈런히 일을하여야만 오즉우리의 살길이잇슬것입니다

經濟獨立
너성을해방하자
◇李顯奎氏談 女子商業學校長

세계의 어떠한나라를 물론하고 지금의모ー든 문데는경제를중심으로하지 안은것이 업슬것입니다 지금의우리의 모ー든문데도역시 경제로인하야 이러나는문데일것이나와 우리는 무엇보다도 일반에게경제뎍사상을 보급시키여서 우리의 활노를찻게할수밧게 업습니다 그러데남자는 여러가지긔관과만흔 긔회에다소간경제에 대한 상식을엇게되지마는 조선녀자는 넘우나가엽슨 처디에잇습니다 그러니와조선민족의 장래를위하야 무슨살길을 찻는다하면 데이국민의모성이되는 모든녀성들로 부터해방을 시키여서 경제사상을보급하여야할줄압니다

運動統一
질곡을벗어나자
◇李英氏談 서울靑年會委員

현하우리의 생활상태가 이중삼중으로 (桎梏)되여 잇는이상우리의 살길은 무론이질곡에서벗어나는 노력을하여야 겟습니다 우리와가튼 처디와 환경을가진 피압박민중들은 세계 도처에서 해방을 절규하야 각각으로그들의 디경을 넓혀오지안습니까우리서울청년회에서는 무엇 보담도 이운동선동일을 위하야적극뎍으로 노력하겟습니다 이러케 우리의운동이 그힘을 집중하고 통일하는것이 곳우리의 살길이라고합니다

責任切感
잇는것을편고히
◇金亨培氏談 徽文高普校長

현재우리의 사회제도가 변번치는못하나마 이보다더 쇠퇴해가지안토록 연구해나가는 동시에 서로서로 책임감을늣겨야 될줄압니다 더욱이일을 시작하는데는 다각기상당한 주의(主義)주장(主張)이 잇겟스나 현재존재해잇는 모든시설과 긔관이라도 내용을충실이하는 동시에기 초를굿게 하는것이 조흘줄압니다 가령말하자면 학교만하드라도 더만히설립하는것은 조켓지마는 현재존재해잇는것이 실로우리가 파멸구덩이에 떠러지지안는 그무엇이 될줄압니다

自己先知
그짓것을버리자
◇姜邁氏談 培材學校副校長

우리는 먼저자긔를 알아야하겟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은넘우도 자긔를 리해치못하는듯 합니다 더욱이 우리들은 허위로살앗고 형식으로 살기뻐는에 자긔가그무엇인것을 진실도해닷지못 함으로 비애고통의부르지즘이 잇다할지라도 피차간하등의 늣김이업는것갓습니다 더욱이 우리의생활은문화제도등각종의사실은 종으로보던지 횡으로 보던지모다자긔를 몰각하고 가면쓴것 것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들은이 모든것을 모다버리는가운대 먼

鬪爭繼續
공고한조직으로
◇徐椿氏談 朝鮮勞農總同盟

커다각기 자긔의 알며 모든일에 착실하여야만될것입니다

우리의살길을 말하려면 먼저정치해방으로부터 경제해방을 엇는데에 잇겟지요 그러나농민운동자의 한사람인나로서는 그보다도 먼저우리의살길을 우리의 다수가 점령하고잇는 농민의하고커하는바에서 다시말하면 각성한농민의 운동여하에 그길이잇슬것입니다 그리고 그운동은 농민계급의 사리만을 위하야서의 운동이아닌동시에 조선에잇서서도 필연뎍으로 벌서어떤과정을 버서나전국뎍 국제뎍으로 발달전개되엇습니다 우리는이에서농민대중이 더욱공고한조직과단결로로구국의목뎍을달성할쌔까지무주한투쟁을계속하는데 우리의 살길을차즈려합니다

派爭先棄
리상을먼저수립
◇趙東植氏談 同德女學校校長

합세자은 말고 그저죽이되거나 밥이되거나 자룸의길을 차저야 것습니다 우리가사려가랴면 지식도필요하겟지요 도덕도 필요하겟지 요그러나 지금의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지경의길을찻는것이며 필요할것이줄압니다

우리는 종래로 당쟁사루가만하 우리의 생로에 낫분영향을주엇습니다 그러나 금일에도그런폐다이 적지안습니다 우리는무엇보다도 먼저쓸데업는 당파의싸움을 피하고 서로뭉처야되겟습니다 그리고 일뎡한표준과뎡견이업시 날뛰다가는 고만실패하고맙니다 무슨일이든지 착수하기전에 먼저리상을 수립하여야합니다 리상을수립한후에는 사업에 착수하고 사업에착수한후에는 직무에충실하야 분투노력하면 거긔에비로소 우리의살길이 잇슬것이외다

새해맛는멍텅구리(一)
화국녀왕

(1) 쏠쏠이가잠자다쓰러저서 (2) 기생녀차저와 화국이야기 (3) 옥매로 대동령을 선거한다고

自活하자
의뢰심을버릴것
◇申알벳트氏談 朝鮮女子學院長

우리는 여래와지의뢰노만 살아왓습니다 그러니와 엇잿든우리는남녀간에 조금도 남에게의뢰

政治運動
그후경제운동도
◇趙紀勝氏談 朝鮮靑年總同盟

우리는이압흐로 정치뎍으로 운

階級撤廢
대중단결이필요
◇張志弼氏談 衡平社執行委員

몰론 전개시켜야 경제뎍투쟁을전할수 잇슬것이고 습니다 그리고정치운동도 우리조선은 식민디인것에만 포착되야 소아병뎍운동으로만 일관하면 다 조선이정치뎍 특수디대임으로 규합하는동시에 지나시긔를 명하게 관찰하야 운동을하는것이 진실한 경제운동자의일이요 조선사람의 살길입니다

형평운동자의 한사람인 나로서는먼저완전한 계급철폐를 말하지안을수업습니다 그러하야 지난해에 관철치못한 모든우리운동의 농향을 촉진시키기위하야 우리와가장 몽지관계가 잇는일반계급적사회단데와일치한보조를취하야 대국운동의 장래신사회건설을 약하는동시에 장래신사회건설의역군을 양성하기에 힘쓰는일방으로 권조선민족은대중단결로덕치와 경제뎍으로 해방을엇는데에 그생도가 잇다고생각합니다

使命充實
각각잘하야가자
◇金智煥氏談 培花女學校敎師

적은샘이 모혀서 큰바다를이루고 적은모래가모혀서 놉흔산이되는것이니 우리민족도 한사람한사람이 다ー잘하여야지 이천만이 모다영화롭지 각기개인은 다ー잘못하드래도이천만이한꺼번에 잘되는법은절대도 업는것입니다 저긔로ー마(羅馬)제국은 남만 클강(强)하지못하고부(富)하지못하야 망한것은 결코아닙니다 다각기자긔의 사명에 충실치못한까닭에 결국엔 그와가티파멸을당하고만것이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자긔사명에 충실하여야하겟습니다

眞實努力
허영심을버리라
◇崔鳴煥氏談 普成高普校長

우리조선 민족의삶은 오래동안 가면(假面)을쓰고 허영(虛榮)을동경하야 왓습니다 그래서온 사회에참다운 그분이적은 동시에 물질뎍(物質的)이고 정신뎍(精神的)임을 물론하고 진실하게 분투노력함이 업슨것이가장 유감되는바 입니다 동시에우리는 압흐로는교육(敎育)이고 종교(宗敎)이고 실업(實業)이고 학문(學問)이고어느방면으로든지 진실한 정신으로 노력하야참스럽게 살어가기를 바라는바입니다

忠實熱誠
민족에에허쓰자
◇朴昌薰氏談 總督府醫專敎授

내뎍생활이나 외뎍생활이나 사덕생활이나 공뎍생활이나 를론하고절대충실하여야하겟고열성이잇서야 하겟다고생각 합니다 우리가절실히 늣기는것은이 것의부족인가합니다그리고항상 사랑을말하나 사실 잇서 적극뎍으로사랑에는비렬중에결핍우 리외다 모든 알력시긔 리간중상

舊習打破
두쟁의식늘교양
◇黃眞熙氏談 中央女靑年同盟

운동이고면목에 인류에에 한업시킨뒤합시다 그런후에 단결뎍어잇슬것이요권속이잇슬것이며 백가지의 난원을 처할것이외다

우리녀성운동은 다른운동에비하야 일반화하지못하얏다고 압니다 어에서우리는 압흐로더욱선뎐과 조직에 로력하려합니다 아즉까지도봉건뎍(封建的)사상의 여페에 얽매여 질곡(桎梏)중에서 신음하는 그것을 근본뎍으로 타파시키는반항의범위를 넓히도록 할것이며 이에 녀성의임무는 더욱투쟁뎍의식을 교양하기에 힘쓰는동시에 한거름더나가서 계급뎍 책임을 다하여야될 과정의모든 해방운동에 한힘을도으려고 합니다 현금상태에비추어 녀성들을 의소리가 습니다 새해에는실 현될줄압니다

世界쌀하
발길을마취가자
◇李賢卿氏談 朝鮮女性同友會

새살길을 찻지아니하면 아니 되게된것은 조선사람에게만 한한문데가아니고 전세계 사람의 공동문데일줄생각합니다 세계를 떠나서 조선사람이 따로밟길을 찻는다는것은 꿈과가튼 생각일 줄압니다 그러니와 조선사람의 살길은 세계대중이 벌서차저가 지고 걸어가는그길로 향하야세 계대중과 발을맛추면서 전진 하는데 잇슬뿐이라고 생각합니다

相扶相助
일반교육이필요
◇崔泰永氏談 徽新校校務主任

우리는 언제던지 형식(形式)제도를 벗어버리고 실디(實地)방면으로 나가지안흐면 아니될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상태가점점파멸에들어감은근본뎍으로정치문제가변치안는이상현재상태보다 못하면못햇지낫지는안습니다 그러타고갑작이엇더케할수는업겟지만우리들은서로자각과로력(努力)하는동시에 상부상조하는뜻으로 총결해나아가야될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에게는현재학교교육보다도일반뎍교육이필요하며 급무인줄로 생각합니다

勇敢飛躍
기술경제가필요
◇安光泉氏談 正友會執行委員

유일의 살길은 오즉비약(飛躍)인줄압니다 살길이라고 헤매여 재래의길에 수면선에서는 아모리 개척하야도 험험떨어지고말 쎈이외다 그런고로 우리의살길 은재래의길과 동떠한평면에서 구하지말고 그보담놉흔 별개의 평면에서 구해질것입니다 말하자면우리는 사회뎍으로 비약하여야합니다 이평면으로부터 일층놉흔평면으로 나아갑시다 그런 데비약에는 용감한 긔백이필요 한동시에 또한정처한 기술이필 요합니다 아니그두가지가 조화 잇게되니겟던에야합니다

過去一年 內外日誌(一)

逆旅가튼이宇宙에一年이란光陰이쌔르다면쌔르고도더되다면더되것이다 丙寅의一年을시나는 가운데에 별고별은 地球上에만코만흔 社會相이그얼마나複雜하얏슬가그러나우 은해를 보내고새해를맛는이째에斷斷剩剩한모든事實을낫낫치갓기어려움으로 다만 그의特記的梗槪 를적어서우리의 긴參考를삼고저한다

一月

◇一日‖國土『戰爭中相互中立條約』成立▲平北熙川郡西面에서警察搜査班과衝突되어○○團一名被殺
◇二日‖仁川靑年聯盟에서道聯盟組織發起▲日本三重縣에서朝鮮人과日本人間에大格鬪되어朝鮮人三名이死負傷者多數
◇三日‖開城南本町에大火災로全燒五十八戶
◇四日‖三重縣에서自警團과警官隊가朝鮮人을隧道中에四日間包圍攻擊▲平南陽德郡에○○團이出現警官隊에게擊銃發射
◇五日‖文川靑年同盟을警察이解散▲木浦幸町大火災損害가五十萬圓
◇六日‖總督府가景福宮內新廳舍로移轉
◇七日‖全南務安郡慈恩面小作組合幹部四十餘名을檢擧하다가鬪가有하야重輕傷이四十餘名이오新聞記者는警備船에監禁▲慶北安東民家運動者懇親會는禁止하고十八名을檢擧
◇八日‖波斯激震에二個村落全滅
◇九日‖市外纛島面民七百餘名이救濟金分配不公으로面事務所襲擊
◇十日‖平北楚山郡에서激戰타가○○團三名被殺▲元山靑年會員十三名은治維法違反으로被擧
◇十一日‖中國東三省獨立布告
◇十一日‖墨西哥『마아리앗드』州大洪水에廿個村落全壞▲平北泰川에서警察官과衝突되어○○團一名被殺▲朝鮮虛無黨宣言書事件主謀者尹又烈逮捕
◇十三日‖平北渭原郡에○○團五人入來▲奉天旬邇屯에中國兵이朝鮮人村落을襲擊하야三百餘名放逐 財產을掠奪
◇十四日‖全北麗水郡突山近海에서漁船顚覆 婦女十一名溺死
◇十五日‖鍾路署에서三重縣事件調査會禁止▲務安郡慈恩面小作爭議關係人三十九名은釋放
◇十六日 普專講堂에서女學生大會開催▲東京에잇는一月會에서三重縣事件眞相調査會를決議하고僻東無產者解放運動者懇親會를開催
◇十七日‖木浦製油工罷業▲中國戒嚴司令部에서哈爾賓을戰區域으로公布하고中東鐵道長官以下幹部를逮捕
◇十八日‖赤露駐日大使館着
◇十九日‖廣東國民軍이北伐을實行決議▲第五國際『斗邏』內閣이組織▲重大犯人朴某가市內貫鐵洞에서逮捕▲咸南記者同盟開催
◇二十日‖露國은中東에百萬名移民計劃▲中東鐵道哈爾賓運轉開始▲元山靑年會委員全部釋放
◇廿一日‖『레닌』追悼會를一切禁止
◇廿二日‖朝鮮日報主催八女學校聯合音樂大會를開催▲虛伯麟氏가上海에서逝去
◇廿三日‖光州靑年會員十一名檢事局送致▲鴨綠江上流에서警官과衝突되어○○團一名死
◇廿四日‖駐中露大使『카라한』氏는中國에最後通牒▲中國外交部로서中東鐵道長官釋放을張作霖에게電命
◇廿五日‖京城花園町에大火災▲禮山警察署에서擧銃靑年一名檢擧▲大田에大火災▲東中鐵道問題解決▲東三省自治聯明▲間島同胞가東滿靑年聯盟組織
◇廿六日‖大邱錦町大火災 十二戶全燒總損害二十萬圓▲黃海道記者大會開催
◇廿七日‖中國京漢鐵道從業員罷業▲海州南本町大火災▲軍資募集靑年田乃洪은安州署에被捉
◇廿八日‖加藤首相逝去▲內閣總辭職▲若槻禮次郞氏臨時首相被任▲中東線問題解決▲正義府員車籍然等은平壤에서公判
◇廿九日‖京城長沙洞東洋染織會社工場燒失▲若槻禮次郞에게內閣組織大命降下
◇三十日‖若槻內閣親任式擧行▲北靑勞農聯合會開催▲咸南利原郡遮湖港에서暴風雪明太漁業者十四名全部溺死
◇卅一日‖漢江과洛東江沿岸水害災民에게救濟金分配▲文川靑年聯盟創立發起

一月 三重縣 虛無黨宣言

二月

◇一日‖全朝鮮專門學校學生雄辯大會開催▲日中互惠條約成立
◇二日‖木浦製油工罷業團失業者大會開催 同工場의朝鮮人從業員全部逐出
◇三日‖普選施行規則公布▲平壤高普生盟休▲虛伯麟氏追悼會는鍾路中央基督敎靑年會館에서擧行
◇四日‖警察部에서義烈團員三人逮捕▲咸北警察部에서某重大犯人逮捕▲大邱에慶北事件徐東日公判開廷▲蓮池洞擧銃事件洪永傳의公判開廷▲禮山擧銃靑年을公州에送致
◇五日‖平南孟山陽德成川等地에十分間强震▲會寧靑年聯盟發起會開催▲咸興靑年會創立
◇六日‖京城各思想團體와主義者의家宅搜索▲光州勞動共濟會가郡聯盟發起
◇七日‖東京大阪에서勞働爭議運動開始▲爆彈事件首犯金一山은滿洲에서逮捕▲京城靑年會多數檢擧▲平南平原郡에地震
◇八日‖赤旗事件의金昌鍾申哲洙張明順三氏出獄▲永興記者團創立▲晉州靑年聯盟第三回中央委員會開催▲義州郡에서馬賊이住民一名刺殺▲慈城郡에○○團出現
◇九日‖平壤에서軍資募集員崔祥善公判開廷▲光州靑年聯盟은道聯盟을組織
◇十日‖滿洲各運動團體는露領沿海州에新韓村에서幹部會開催▲元山署에서某重大犯人逮捕
◇十一日‖高陽郡纛島에避水臺起工▲李完用死▲全朝鮮新聞配達總同盟創立
◇十二日‖遞信局出入記者團이京電料金引下勸告決議▲東京의無無我黨員이京城에過激文書配布▲慈城郡湖下洞에서巡查와衝突되어參議府員一名被殺
◇十三日‖今日舊曆正月初一日
◇十四日‖正義府中央總部는軍人募集決議▲義州郡威化面에○○團入來
◇北靑各團體聯合으로言論集會壓迫糾彈會開催

二月 리푸族의更生運動 專門學生의雄辯大會

三月

◇一日‖三月一日紀念으로大警戒▲在東京朝鮮人留學生會의三月一日紀念會는解散 九名檢束▲中國河南鄭州陷落▲奉天軍總出動命令
◇二日‖北京學生은日貨不買同盟을組織▲大邱高普生全部가同盟休學
◇三日‖日人不正金融業者四十三個會社廢止命令▲沙里院私立德盛學校生三百名同盟休學▲李王世子同妃兩殿下德惠翁主와함께京城還御▲中國河南軍이黃河鐵橋爆破
◇四日‖全朝鮮道靑年聯盟代表會議開催▲中國買德縣內閣成立▲端川記者團創立
◇五日‖各思想團體는運動統一聲明書發表▲大田에서某重大事件犯人白南鎭逮捕▲咸南社會運動者同盟創立▲義州郡加山面에○○團出現▲日本無產政黨結黨式
◇六日‖平南道內四十三個의私立講習所에私立學校變更命令▲東亞日報發行停止▲佛國內閣總辭職
◇七日‖順天郡靑年聯盟創立▲全南道聯盟發起總會▲麗山記者團創立▲中國國民軍이天津太沽封鎖 各國領事團抗議
◇八日‖革淸團員金相翁等은各懲役一年言渡▲義州威化面에○○團出現▲間島記者團組織▲順川价川의火田禁止命令▲國際聯盟會議開催
◇九日‖价川蓬月面東拓小作人百三十戶小作權破奪▲渭原郡西薬面에서巡查隊와衝突되어○○團一名戰死▲米國觀光團六百四十名入京
◇十日‖在滿同胞가建築紀念館建築義捐金大募集▲全州郡東上面火災 十六戶全燒一人燒死▲全北井邑金堤扶安三郡의三角勞働聯盟創立▲佛國『브리안』內閣成立

以下四面繼續

本社主催 女流名士 家庭問題 合評會

衣服・住宅・飮食・結婚・戀愛・育兒・問題를如何히할가

가뎡문뎨는과도시긔의조선에잇서서 중요한문뎨중의한가지가되엿다 가뎡문뎨에도가지가지잇스니 일일히열거하지아니하드래도 의식주(衣食住)를 어떠케하것느냐하는것이 한문뎨이요 또현대의특수한현상으로보아서는 결혼(結婚)·련애(戀愛)문뎨를 어떠케하겟느냐하는것이또한가시문뎨이다 지금와서는 남자인지식계급의 사람들의입과 붓으로만이러한문뎨를 비평하여왓섯고 … 생각합이 … 반는조선녀류 각방면의녀류명사들을일컨에초청하야 가뎡문뎨합평회를개최하야 거릿심이업시 이에대한의견을발표하게되엇다 말이바야흐로어흘리매 가시각색의특성 … 다늣기워든바를잇는그대로발표하는광경은 이더한 합평이아니고서는도뎌히 다시볼수업는 자미가 늠소숨하는회합이되엿다 새침하고도뚝뚝한말슴 털렁하고도꼭올흔말슴 시침을뚝떠고련연시려운말슴 얌잔하고도 알뜰하신분 무지개티 과염을토하시는분 사부랑사부랑 조리를차즈시는분 걸걸한중에도 식견이뎍뎍하신분 이띄끔한번식톡내지드는분 그야말로 여러테잇도피고 입술에서바람도일어 어느덧시간이가고 밤이드는줄도몰럿다 말슴마다유리하고 마듸마듸흥미가소삿다 다만초청한분이다참석치못한것은 유감이엇다 이에 그합평회록을소개한다(一記者)

飮食問題

安在鴻 에-조선사람은음식을 … 만히하여야 …

金英順 남자들이 사 … 허 잡수어주어야 됩니 …

金 善 현가족 … 케도 … 도뎌히될수 업습니다

李德耀 그럿습니다 한가족이 한자리에서 식사들하기는 어려웁니다

安在鴻 한가족이 한자리에서 식사들하라면, 엇더한방식을취하여야 되겟습닛가

方信榮 제가일전에 어느집을 방문하엿더니 그집에서는 다란 식탁가운데에 제구를만드러서 그우에 … 를올려노코 온집안식구가 돌러안저 제각기 떠먹는것을 보앗는데 그러한 간단한 방식을 취하면 한집안식구가 한자리에서 먹을수잇다고 생각합니다

申알벳트 그러한 살림을시작한다는것도 조선사람으로는 역시경제문뎨가될줄압니다

金 善 그것은경제문뎨보다 아니요 거긔에는 역시녀자의 지식문뎨가 잇슬줄 압니다

李益相 경제문뎨나 교양문뎨가튼것은 근본문뎨이올시다 우리들의 현실생활에서 허락하는범위내에서될수잇슬줄밋습니다

安在鴻 김선생, 미국사람의 가뎡생활을 말하면모든것이규측뎍이되야서매우자미잇겟지요?

金活蘭 그들의생활은 부부중심이되여서 모든것이 간편하게개량할수도 잇고 어린이들까지라도 한자리에 모혀먹게되니까 퍽자미가 잇서요

金愛息 부부중심생활이되여야만 마음대로될줄압니다 저의가뎡은 부부가다 시간생활을하고 식부모도 안게시니까 케될노 음식시간이 가다되고 모두것이 간편하게되어요 이후에자녀가 잇스면 엇더케될는지 알수업스나 지금가태서는 저의가뎡에는 시간문뎨가튼것은업습니다

安在鴻 지금우리조선에서는 장유나 김치가튼것을 집집에서 만들게되니까 부인네들의 향상될시간이 더 업는듯한데 엇더케 공동으로 만들게되면 조켓습니다

金英順 그러기에장유나김치가튼것은회사가튼데서만들어서공급하게되면조흘줄알어요

成義敬 그것이리상으로는조흔말이지만 실디로는 어려울것이요

金元周 장유나김치가튼것뿐만아니라 우리가평소에 먹는음식을 모다자긔집에서만 만드러먹지말고 음식집에서 사다먹든지 공중식당가튼데 가서먹는것이 조흘듯해요

崔恩喜 평소에먹는음식을사다먹어요? 내남편이나 내자식을 내손으로 정성을들여해먹여야 그가뎡에 며뜻한맛이 돌지요

成義敬 오라잇, 가뎡은참말 주부의정성이잇서야잘될줄알어요 그리고우리가 손님으로조며를 바더서가도 주부가 친히만드러 그가뎡의 독특한료리로대접을해주어야더깃부지안허요 공중식당 가튼데는 가뎡생활을하지안는이나, 또는 잇다금 온 가족이함께 취미로나가서 …

… 사람은음식의가지수가 너무만코 분량이너무만하요 조선가뎡에서 손님대접하라고 만든음식은 … 그리고 … 음식만먹어서 안되엿서요

崔恩喜 참그래요서양사람들처럼아츰에는 간단히 우유와빵이나먹고 점심에는순조선음식으로 잘반드러 먹고저녁에는 무슨반찬을 만드려 먹고 … 한주먹 음식을미리봐노코요

朴興順 날마다 가족들에게 물어보아 가지고 해먹는것도 조치요 저는족히들을 다리고 잇는데 아츰에 식탁에모혀안저서오늘저녁에는 무엇을해먹고 래일아츰에는 무엇을해먹자는의향을 미리 들어가지고합니다

金愛息 최은희씨말슴대로우리집에서는 양식과 조선식을 석거가지고 영양에만 주의하야 간단히하여먹습니다

趙慶姬 그런것도다생활정도문데에요 무에니 무에니하야도 첫재조선사람은 돈이잇서야지요

安在鴻 위생뎍견디로보아서 음식에대한 의견이 업스십닛가

劉英俊 첫재한그릇음식을여럿이함께먹는것이납부지요 일본에서도 병균을 만히매개하는것은『소바』집가튼 음식집입니다 이것은 소독이충분치 못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쉬운사람들의 먹는숙밥을보면 그온도가『미균』이 번식하기에 가장뎍당한것을 그대로먹습니다

成義敬 의사에는참말이오 … 의사는 … 찬물먹는것이 그러케 납분가요

劉英俊 그것은수도물을말하는것이지요 내가진찰하던 경험으로 두두다녀보아도 아즉도 우물물쓰는집이 만흔데요 더구나 석골서야 수도물쓰는집이 멧지나되나서요 또한병자의 먹고난그릇을 소독을하지안코 그대로 씻츠닛가 전염이되기 잘되는것입니다 먹고난그릇은 뜨거운물이나 비누물로반드시소독을하여야됩니다

金愛息 그럼은요저의집에서는 비누물로 소독을한답니다

安壽敬 비누보다『소-다』가 더조치요

孫貞圭 참조선사람들이뜨물로그릇을씻는것이엽레가잇서요 일면여름에석왕사에서그비릿내나고누릿내나는날마다여러손님지른그릇을엇더케그러케깨끗하게하나하고 자세히 주의하여 보앗더니 다시어진 김치국물을 타서 씨서요 참으로그럴듯해요 그물은 순전한 경험으로만그런묘안을어든듯하지만 학리상으로 생각해보아도 발효(醱酵)한산(酸)이 자연히소독재료가되는것이야요 커는참납감심햇서요

李賢卿 이것이고커것이고해도밥하고 보면 모다경제문데지요 경제문데가 해결되지못하는날은 결국마찬가시 예요

出席女流名士 (無順)

金美理士	槿花女學校長
申알벳트	朝鮮女子靑年會長
劉英俊	梨花學堂校醫
金活蘭	梨花女子專門敎授
金愛息	上同
兪珏卿	女子基督敎靑年會總務
孫貞圭	京城女子高普敎諭
林順分	上同
成義敬	淑明女子高普敎諭
趙慶姬	上同
金順英	同德女子高普敎諭
朴聖煥	上同
金英順	貞信女學校舍監
方信榮	貞信女學校敎員
朴興順	同上
金智子	進明女子高普敎諭
金 善	
李賢卿	朝鮮女性同友會
吉貞姬	東大門婦人病院醫師
玄德信	上同
安壽敬	上同
金順福	上同 藥劑師
李德耀	總督府病院醫師
朴敬植	
金元周	
洪에스더	協成女神校敎師
安在鴻	本社
韓基岳	本社
金俊淵	本社
李益相	本社
崔恩喜	本社

住宅問題

安在鴻 조선주택은살림하는데뎍당치못한듯합니다 엇더케 개량할 필요가 업슬가요

方信榮 우리주택은넘모가컥어요 집안에서 방과방의교통도조티못할뿐아니라 부억에만 나려가려도신을신어야가게되고 더구나변소는 험신떠러지잇서 여러가지로불편한첨이만습니다 시간불경제도 되고요

金俊淵 독일서는주부가특별히밧게나가지아니하고 음식이나 빨내를한곳에서 하게되는까닭에 시간이퍽경제가되고편리합니다

李德耀 주택문데는 경제문데이야요 집케도 몬커고쳐야될터이니까요

李益相 서양의부억이나일본의부억에 조선부억을 비교하면 부인네의능률이 얼마나틀릴가요

方信榮 아마 삼배이상 틀릴줄압니다

韓基岳 조선가옥은 대문간에 행랑이잇서서 들어가자마자 그지커분한것을 보는것이 안되엿서요

方信榮 행랑은 둘수도 업고 안둘수도 업는것이야요 그러나 할수잇는대로는 안잡자기를두고 행랑은 폐지하는것이 조흘듯합니다 만약 폐지할수 업다면 행랑을대문간에짓지말고 뜰뒤에박으로 짓는것이 낫겟지요

金愛息 온돌방을업새는것이 엇덜가요? 온돌은 아모리완전하게만든다 할지라도 연기가 들어오기쉽고바람이들면 불이나여 위생에퍽해롭습니다 커의집에서는 응접실은 화덕을피우고 침실에는침대우에서물수머니만쓰고그대로자는데관계치안어요

崔恩喜 그것은조선서는실행하기어려울듯합니다

金活蘭 굴뚝을고치면연긔는덜하지요

朴興順 온돌은아모래도폐할수업서요 더구나침실은집을양케로짓고『스팀』을피고사는 생활의여유잇는집외에는 반드시온돌이라야하겟지요

金愛息 또한 집집마다 반드시목욕탕이 하나식잇서야겟서요 공동목욕탕에서 병이엄마나 전염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을 못해노아도 집아식구가모여 잇곳은 만드려야될줄압니다

金活蘭 그것이야 돈드는치요 나는역시경제문데이닛가요

金愛息 들리고 조선사람은 농이니 장이니하고 세간을너무만히 버려노코 살어서이사할때 큰곤난을당합니다 찬상가튼 것까지라도 모다벽에다 큰만들고 다락,벽장,골방가튼것을 만히만드러서 무엇을 건이든지 그대로 집어너코쓰면 여러가지점으로보아 대단히편리할것 입니다 우리집에서는 그만것는 다실행합니다

崔恩喜 그럿습니다 집안을 장식일 세간이외에는 모다들여노코 쓰도록만든 … 재집안에 … 압니다

金智子 부억하고 낫데여서 바 식정을 만들고 부엌과식당사이로 통하는적은 문이잇서 그리로음식을가시고 드나들게 만드는것이 아마시간 … 레가될길이요 나아는엇던집에서는 커다란그러케 만들고 직탁엇에 저물찬상을 만드러 수자방공과 잔그릇 가튼것을 집어너흘데 퍽편리하여 보혀요

崔恩喜 그것도조흔 의견이외다

… 세를 손님은 잘드릴 … 보기쉬울만한곳에 빈드려 손님의 편리는 도아주고요 거리에나갓다가 녀자들이 … 당하는것은 … 가뎡의 변소도 방에서갓갑게 만드러 밤에차다가 니려나가기에 불쌍함이 업게되고 자연히 방안에 요강가튼것도 놋여노치안케되고요

金愛息 우리집에는응접실과 … 하고 각각 … 잇는것가운데에변소,목욕탕,세수간을만들어짓고 변소는 영으로 열집이싯깁이파고우에는뚝경을만드러목덩게만드럿습니다

申알벳트 모다 경제문데에요 몰라서 못하는것도 잇시마는 알어도돈이 잇서야하지요

韓基岳 벽도흰조희로만바르는것이 얼는더럽고 눈에도해롭지안흘가요

劉英俊 위생에도해롭습니다 장마통에 바르게되면 곰팡이얼는일도잇거니와 하고 고라서 그속에서 미균이 발생합니다 또조흡한집에는건독하면곰팡이가나지요

崔恩喜 근래에『가세인노론』(塗料)이라는것을사용하는집이잇는데 그것은가지각색의빛이잇고 빛가튼처럼몰에개여서풀바르듯벽에 바르기만하면 됩니다 취미상으로 보아도색채를 쓰는것이조코 더구나연한연두빛이나연옥색가튼빛은정신상위안을줍니다 독신자의침실에는그런빗을사용하는것이 퍽뎍당할줄생각합니다

李益相 참그래요커잇는방을푸른빗으로 발럿든데 요새처럼치운날 다다미방에서 열면서도 그색에취하야 그방을떠나 더운곳을 차저가고십지아너요 은연중에무슨 암시를주는것갓고 아조 다정한위안을 밧게됩니다

兪珏卿 그리고 서양집이나 일본집처럼 온돌안을 안으로잡그고 문하나만 밧게서나안에서 맘대로잠글수 잇도록반드러서 집보는이가 업드래도 념려업시 채이고난기도록 하여야겟서요 염쇠는식구들이하나식가시고단이고요 더구나우리가튼직업부인이사는집에서는

洪에스터 나는 무엇보다도 조선주택에 변소개량이 더급한줄압니다 상뎐가튼데도 눈 …

국일관에열린 녀류명사가뎡문뎨 합평회광경

002237

衣服問題

安在鴻 조선의복에대하야는 개량할첨이 업슬가요 케도문데나 염색문데나 재료문데에 대하여서요

成義敬 조선녀자의의복은참으로 리상뎍이지요 세계어느나라녀자 의복에 비교하여도 곱도손색이업지요

劉英俊 남자의복은반드시개량할필요가 잇습니다 남자의바지두루막이나 들어가게되니 그런것은 속히고쳐야지요 얼마나불경케가됩닛가 보기도실코요

金英順 그리고자조빨시안토록물들여서해닙어야지요

劉英俊 것헤닙는옷은염색할필요가 잇시마는 속옷은위생뎍견지로 염색한것을 사용하는것이 단이불가합니다 새소가 몸에다으면 퍽해롭습니다

金英順 겻옷만이라도자조빨지안코 다듬시안코 지을에도 송두지안코 닙도록 고쳐야하겟습니다 빨수잇는네로는솜기를 재봉침에박어서 겹옷으로지어 … 니다

朴興順 겹옷을여러벌닙을것이업시 실에닷순옷이뇌에는헌실로짜서닙으면 가사수도 적고방화도 상당히됩니다

成義敬 … 입어도 … 다

金英順 세탁법도어렵시요 잘못하면 주려들고 느러나고하구요

朴興順 아니요『닥스』로 빨든지『마누세-루』비누로빨어서 잘 놀리면 관계치안습니다

安在鴻 그런데식골서는의복에물감을 들여넙으랴 하야도 물감을이두낭하기가크게곤난하다합되다 들여만히 드넛가 첫재물감사기가 어렵고 한번빨면 또물을 들여야하는고로 도로혀 귀치안타합니다 가낭기술상으로는 도뎌히 완전한염색을 일수업는게지요

金 善 서울서야 집에서하기어려우면 염색집에가서 들여와도돈이 얼마먹지 안습니다

金英順 무명치마한감에삼십오전만주면 염색집에서 엇더한물감이든지 다들여줍니다

朴敬植 염색집에서들여오는것이 조키는 하지마는 가뎡에서도완전한 염색을 도커히할수업다고는못합니다 우리는엇더한감을들이든지 집에서하는데요

成義敬 조선서는 협상으로도 염색법이 매우발달되엿습니다 리론보다경험이더귀중합니다

金英順 동신녀학교에서는무명에염색을 하야 치마던지커고리던지 만버서 안의노다려서만해닙습니다 그런데그것이 세두이상으로보기조흐되다 그래서 다드미들을 폐지하엿습니다

朴聖煥 조선감에다다드미를하지안흐면 무엇이되여요 얼는국이고 더럽도 쉬리고 채ㄷ 업구요 조선옷감은 답답이 잘나듬어야만오래입게됩니다

申알벳트 과연그래요그러닛가 먼저옷감을 개량하여야겟습니다 양속으로요

劉英俊 양속은 쓸것업시조선감을 그대로 사용하고다드미기계를 발명하면되지요 남자들이 어서나드미기계를 발명하여주어야겟소

崔恩喜 녀자는웨못발명합닛가? 그러치만 다듬는것이 옷감도 쉬상하고 시간도불경제가된다는말이지요

金 善 다듬는것도방법이잇습니다 살울들만큼만 다드머가지고다리면 만히 다드믄것보다 더조습니다 나는그러케 실행합니다

劉英俊 실상은 다듬는해연아니 빨래할때에 옷감이 더만히 상하지요

金元周 세탁집에서빨어오면 옷이헤여지지아니하고 편리합니다

玄德信 양복은세탁집에서빨더온다기로 조선옷까지야 엇지 일일히 맛거빨것오 그런데말이지 남자들이 양복을닙든지 조선옷을닙든지 한가지만닙어야지 이중생활을하닛가 여러가지점으로 불편한첨이만허요

金 善 그러케말이예요조선복으로만도 넉넉할터인데요

成義敬 아이그조선두루막이와거츠장스러워서엇더케는닙어요 안서생님볼뼈하시시 안으세요

安在鴻 비과히불편치안습니다

申알벳트 가뎡에서는 관계치안치마는 사무복으로야 엇재불편하지안흘리가잇습닛가

劉英俊 일할뼈는버서부치고하지요

李賢卿 그런용긔가잇나요

安在鴻 개인으로는조선바지커고리 만납는 것이엇재어새해보이지마는그것도단데로두구나다그러케한다면관계치안켓지요

成義敬 쌍지바진새갓지요두어

崔恩喜 일할뼈는두루막이들벗는다할시라도길에단닐뼈는엇더케 하여요 던차나긔차에오르고 나릴뼈 두루막이자락이펄럭펄럭하는것이퍽거북하지안어요 아모러튼지조선남자의복은전부를다개량할필요가잇서요

申알벳트 개량하다뿐 이예요 남자들이 잠시만 두루막이를벗고넙울하여보세요 커무도록괴칭송을추키고잇지요

衆人 바지는뭡방을해메게하지요

劉英俊 그런데양복은더데부는리유도잇습닛가?

李益相 그는두가지가잇는데 실덕과 사치덕이잇습니다

劉英俊 실부덕으로보아서조선옷이얻지편리치안습닛가

李益相 양복은한벌이면 싸우넙어도한겨울을날수가잇시마는조선복은것칠을두넘고벗거되시안흡닛가

崔恩喜 그것이야옷감을고치면되지요

韓基岳 위생상견디로는양복과조선복이엇덧습닛가

玄德信 물론 조선복이 대단조흡니다

劉英俊 양복에『칼라』라는것이 퍽해가됩니다『칼라』 빼문에 목에종긔나는이가 퍽만습니다

金 善 양복을폐지하고조선복만 입는것이 경제상으로도 유리합니다 만일 양복이라면 … 부는칼라를사우하는것이 조켓습니다

孫貞圭 정말 그럿습니다

李德耀 그러나 조선사람의 처디로는 양복은폐지할수 업는주 필요가 복사의 이중생활은 면치못할것입니다

玄德信 그럿습니다 자연히 그리케됩니다 그는 조선가옥케도에는 집에와서는 불가불 조선옷을닙게됩니다

韓基岳 어린아인들의의복은 엇더케하는것이조흘가요

吉貞姬 현실노참 엇업이는것이 빌품상에 퍽유익하지요 녀름에는 송고적가튼 … 으로알에우에 달어지어입히고 속옷만 힌것으로하면 되겟습니다

林順分 속바지는『사루마다』처럼 밋이막히게하고 세루가튼것으로 치마두개늘시어 속치마는짤 만들어 허리만 늘고게하고 것치마는 밈방울메거리속으로 채이는단추를 달어주면 집서조선버선을 신을뼈는 것치마를나려입고 구두를신울뼈는 올리켜입고 일할뼈나 운동할뼈 것치마를버서노케하고 켜고리는 볼돈릴실노 길게짜서입이면 아조 편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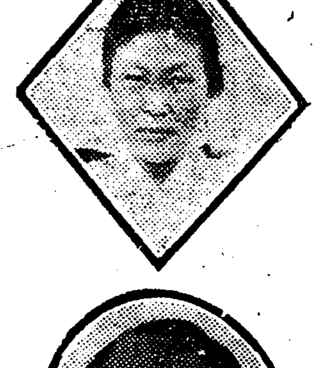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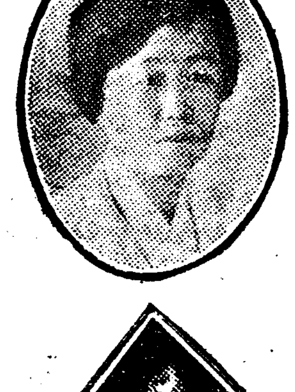
李益相 의복은조화를생각하지안흐면안될것입니다 조선두루막이에 구두와 모자를사용하는것은 퍽 우수운일이올시다 서양사람의눈으로보면 참 요절할노릇일걸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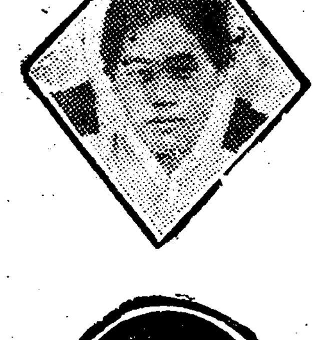
劉英俊 조선옷에는조선버선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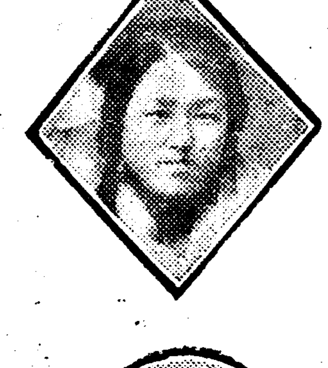
成義敬 남자들의버선안신는것이우난들의수고는얼마나덜게하는데요 일건긔는종퍽게되닛가.........가뎡부인들한테미움을바들소리그만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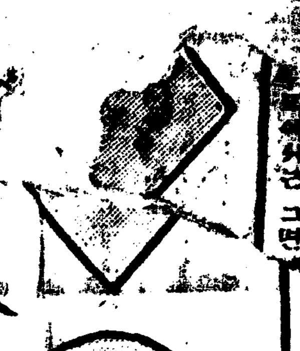
金俊淵 독일사람들은구두늘아침에한번신으면잘때에나벗게됩니다. 그럼으로양말도섯커레만가지면일년을지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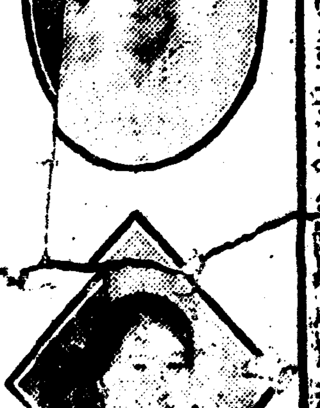
劉英俊 그런데는압만여괴서버서도소용이업스니 자-ㅣ 이케는어서다튼데를쇠냄시다 양복넙고불산장려연설단이는격이지









사진설명

◇우상으로부터 신알벳트녀사, 손정규양, 류영준양, 김활란양, 길정희녀사, 조경희양, 박성환녀사, 현덕신녀사, 김영순양, 리현경양

◇하우로부터 김선주녀사, 김진녀사, 박승식양, 안수경양, 최은희양, 권지자양, 박흥순양

◇좌상으로부터 김미리사녀사, 유각경녀사, 리덕요녀사, 김애식녀사, 청의경양, 홍에스더양, 방신영녀사, 김순녀양, 김순영양, 림순분양

이하명일계속

轉換期에臨한新年財界
斯界名士의觀測은如何

歐洲大戰後그反動이有한以來로財界는世界的으로不景氣에沈淪하다가數三年以來多少恢復되라는曙光이[illegible] ……斯界名士의新年財界觀測을紹介하야參考에供코저한다(一記者)

眞實한恢復은難望
諸事業의勃興勤儉의必要
◇朝鮮銀行總裁 鈴木嶋吉

昨年의經濟界는各方面이모다依然整理緊縮의 해이엇다 [illegible]

對外信用
[illegible]

國際貸借
[illegible]

流入資金
[illegible]

商工業의 收益率은不振
[illegible]

朝鮮經濟 界도整理緊縮
[illegible]

産業開發
[illegible]

正貨流出
[illegible]

回轉하지
[illegible]

一洲 金振宇氏 筆

商界活況
前途는多望
漢銀頭取 韓相龍

比年經濟界는對外貿易의逆調와爲替市勢의動搖로非常한困難을感하얏다 [illegible]

貿易不振
[illegible]

各方面의
[illegible]

好況難望
大概는平穩
韓一銀行頭取 閔大植

[illegible]

日本金融
[illegible]

震災手形
[illegible]

一時는不況
徹底히整理하라
殖銀頭取 有賀光豐

年頭에際하야過去一個年間의經濟界를追想하고또年初의所感을述하라 [illegible]

其他綿糸
[illegible]

株式市場
[illegible]

不景氣에
[illegible]

一割三步
[illegible]

全然更新
[illegible]

不況原因
[illegible]

覺悟가必要
破滅되는經濟界
朝鮮生命 梁在昶

우리가昨年一年間에얼마나더엄[illegible]

一人平均
[illegible]

即
[illegible]

優
[illegible]

期米는如何
徐徐히好轉
仁取取引員 小林藤右衛門

[illegible]

大體豫測
[illegible]

買出動을
[illegible]

投資의好機
不況은終局
京城紡織專務 李康賢

今年財界는大體로良好할줄로[illegible]

綿糸市勢
[illegible]

奢侈禁物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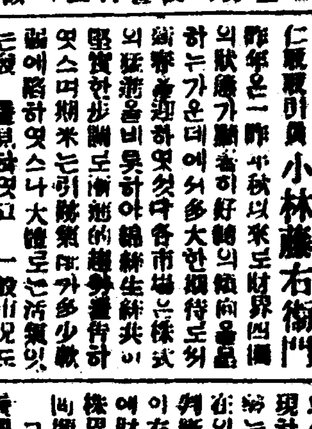
五十分一
[illegible]

軟
[illegible]

貿易振興
[illegible]

樂觀尚早
金解禁과株界
京取社長 天日常次郎

[illegible]



키잃은帆船
李益相 作 李靑田 畵

밤은 깁헛고 눈은 싸혓다

눈오는밤 남쪽나라의 적은도회인 전주(全州)의 커자거리는 더욱고요하다

해길에는 사람의 발자최도 끈첫고 희부스럼한눈빗이 사푼사푼 떠러진다

[illegible]

『여보게 오늘강연회는 [illegible]』

[illegible]

『우리 고을사람들도 이제는 좀 깨 모양이지!』

[illegible]

◇天氣豫報 [illegible]

新氏內閣
[illegible]

楊宇霆氏
[illegible]

▲新春特別大興行▼ 十二月三十一日夜부터 一月一日부터五日外지 水陸百萬人力 全七卷 虛榮은禁物 全六卷 스페드의1 全四卷 콘레이太公望 全二卷 猛襲 全二卷 國際時報 全一卷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新春無敵의特別大興行 十二月卅一日(夜)부터 一月一日부터同五日까지 地獄極樂 全七卷 漂泊의人 全八卷 霸氣滿滿 全七卷 俠勇돈자 全七卷 雷光의로맨스 全五卷

朝鮮劇場 電光二〇五〇番

쌈잘하는夫婦 全二卷 (폭쓰時報) 全一卷

優美館 電光三九五番

當選謝禮 今般[illegible] 張斗煥 / 朴有根 / 安鍾[illegible]